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돌봄 노동이 된 아동보행  
- 산본 신도시 아파트 사례 연구 -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황 명 주

# 돌봄 노동이 된 아동보행

- 산본 신도시 아파트 사례 연구 -

지도교수 박 경 숙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황 명 주

황명주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이미 국가적 의제가 된지 오래다. 이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한국이 성장만을 기조로 여타의 재생산 비용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에게 떠넘겨 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 중 여타의 공공 복지, 특히 ‘공간 복지’ 투자에 소홀했던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잡은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 옥외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행환경과 아동 돌봄 노동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구학에서는 수렵민족의 환경적 요인이 출산간격에 영향을 주어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양육자에게는 돌봄 부담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의 가장 기초적인 독립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보행 환경은 돌봄 노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환경이 개선된 신규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못한 구(舊) 아파트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 각 단지 내 취학 전후 아동 양육자 12명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보행 환경의 차이에 따른 그들의 돌봄 노동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보행환경이 개선된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는 구 단지에 비해 많은 어린이들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의 동적인 야외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 교통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따라 신 단지의 양육자들은 양육 스트레스도 덜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아파트 단지들이 ‘통행’ 목적의 옥외공간을 제공하였던 데 반해, 신 단지의 옥외공간에서는 녹지 등 휴식공간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양육자들의 관리형 돌봄 노동의 스트레스도 경감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보행공간이 강화된 신 단지의 돌봄 노동 행태도 구 단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한계를 보였는데, 아동의 독립 보행 연령이 지연되는 현상, 양육자가 옥외공간에서 아동의 뒤를 쫓는 1:1 관리형 돌봄 노동이 지속되는 현상, 양육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아동의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해주는 ‘신중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현상이 그것이었다.

보행환경이 개선된 신 단지 내에서도 아동의 독립보행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아파트 단지가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단지 내 보행환경은 양호하나 아동의 활동 반경이 단지 내로만 제한되지 않기에 교통사고 걱정이 완전히 털어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보행환경 개선 없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환경 위험 해소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위험은 양극화될 수 있어도 불안은 양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형 돌봄 노동의 또 다른 원인은 아동 대상 범죄 등을 우려하는 양육자들의 불안심리인데, 이러한 불안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즉 사회 양극화의 해소 및 범죄 가능성의 감소 없이 특정 지역의 불안만이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는 오늘날의 양육자들 자신의 성장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환경인지 때문이다. 흔히 ‘개발시대’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성장한 오늘날의 양육자들 중, 근린주구 보행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지방 소도시, 농촌 출신자들은 아이들의 독립보행과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 혹은 공동체 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보행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대도시에서 성장한 양육자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불안도가 높거나 지향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즉 양육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보행 환경과 경험이 한 세대의 시간을 건너 현재 이들의 근린주구에서의 환경 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의 현재 양육 태도와 돌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다.

정리한다면, 오늘날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선된 보행환경은 특정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옥외 활동을 허락하고,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도 일부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지녔음이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회의 보행 안전도를 높이지 않는 한 아동의 근본적인 독립보행은 요원하며, 이 시대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부담도 근본적으로 경감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 시대를 거치며 진행된 우리 사회의 보행환경 악화, 커뮤니티 파괴가 현재의 환경 인지와 돌봄 노동 형

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지난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며, 이는 다시 미래의 돌봄 노동과 출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조심스레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만들기’라는 통합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자녀의 사회적 자본 만들기’와 같은 신종 돌봄 노동과 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초래한 보행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시피 보행환경 개선 및 그로 인한 돌봄노동 부담 경감 노력은 일부 집단의 일부 근린환경 개선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 ‘공간복지’에 대한 정부의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때다.

**주요어 :** 돌봄 노동, 보행, 아동, 아파트, 개발자유주의, 공간복지,

사회적 자본, 근린주거, 저출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학 번 :** 2013-20084

# 목차

|                               |        |
|-------------------------------|--------|
| 제 1 장.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 7      |
| (1) 아동의 보행환경.....             | 7      |
| (2) 보행환경과 아동 돌봄.....          | 14     |
| 3. 연구방법과 자료.....              | 20     |
| 4.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 21     |
| <br>제 2 장. 아동 보행의 물리적 환경..... | <br>25 |
| 1. 일반 사항.....                 | 25     |
| 2. 보행공간 비교.....               | 26     |
| (1) 조감도 비교.....               | 26     |
| (2) 보행환경 세부 비교.....           | 28     |
| 3. 보행활동 비교.....               | 37     |

### 제 3 장. 아동 독립 보행의 지연 요인.....42

1. 아동 독립 보행 지연.....43
2. 아동 독립 보행 지연의 원인.....46
  - (1) 길의 의미 변화.....46
  - (2) 사회적 자본의 약화 .....62

### 제 4 장. 아동 보행의 돌봄 노동화.....79

1. 1 : 1 돌봄 노동의 가중.....79
2. 사회적 자본 획득 전략.....80
  - (1) 참여적 전략 : 엄마가 만드는 사회적 자본.....80
  - (2) 시장적 전략 : 엄마가 사주는 사회적 자본.....96

### 제 4 장. 결론.....106

1. 연구결과 요약.....106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108



|                 |     |
|-----------------|-----|
| (1) 연구의 함의..... | 108 |
| (2) 연구의 한계..... | 109 |
| 참고문헌.....       | 110 |
| Abstract.....   | 117 |

## 표 목차

|                                       |     |
|---------------------------------------|-----|
|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4  |
| <표 2> 신 구 단지 옥외 환경 및 어린이 옥외활동 비교..... | 40  |
| <표 3> 출산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2014년 기준).....   | 76  |
| <표 4> 돌봄 경험 및 전략 비교.....              | 10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분당 정자동 동양파라곤..... | 3  |
| <그림 2> 판교 봇들마을 9단지.....  | 3  |
| <그림 3> 동탄 우미 린.....      | 3  |
| <그림 4> 반포 래미안.....       | 3  |
| <그림 5> 분석틀.....          | 23 |

# 제 1 장. 서론

## 1. 문제제기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국가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201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총 43만 6천 5백 명으로 전년 대비 9.9%(약 5만명)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1천 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1.187명인데, 이는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이하로 OECD 최저 수준이다. OECD 최저수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기도 한데,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4년 11월 발표한 ‘2014년 세계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2010~2015년(2015년은 전망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 홍콩(각 1.1명) 다음으로 낮다. 마카오와 홍콩이 중국 내 특별 행정구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sup>1</sup>

영국의 인구학자 콜먼(D. Coleman)은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향후 300년 뒤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sup>2</sup> 이렇듯 저출산 상황이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는 그 대책에 부심하다. 이는 한때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제성장의 조건, 근대화의 결과로도 여기며 자랑스러워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많고 이에 관한 연구도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만혼, 높은 양육비 부담, 부족한 보육 시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환경 등 거시적 차원부터 부부의 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양육 스트레스 등 미시적 차원의 변인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저출산의

---

<sup>1</sup> “한국 출산율 사실상 세계 꼴찌… 기대수명 3위 ‘초고령 사회’로, 한국경제, 2014.11.18

<sup>2</sup> “대책없는 저출산…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1호 국가?“, CBS, 2014.11.23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 현상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만들기’ 등 환경적 요소에 주목한, 보다 생태학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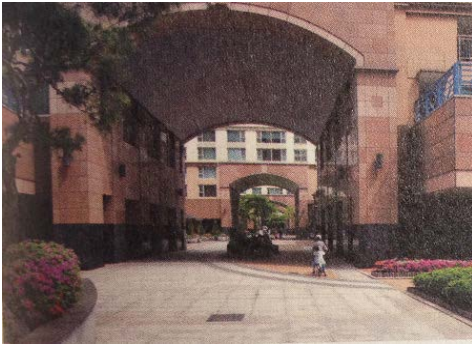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란 최소단위로 축소되고 고립된 가족을 넘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약화된 현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9). 이러한 ‘가족친화환경’은 2006년부터 여성 가족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학술적으로는 여전히 모호함이 많은 개념이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돌봄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 인문사회 환경은 물론 건축과 도시설계를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거환경에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가 존중되고, 가족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공간으로, 개별 공간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좋은 공간 및 환경, 살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 등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계획 목표가 되고, 그 평가 기준으로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이 꼽히는 것이다(박성신·이원아·김혜란·류전희, 2009).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듯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가 뒤늦은 대응에 나서기 전, 이미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마련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녹지공간 및 보행환경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아파트 옥외공간의 변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2010년 통계청의 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인구의 53.7%(가구원수 기준)가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근대화와 함께 불거진 도시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경부터 추진된 가장 비용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설계로 ‘찍어내던’ 아파트 건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변화를 보인다.<sup>3</sup> 즉 지상의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

---

<sup>3</sup> 아파트 물량 폭증으로 미분양 사태가 일던 90년대 중반부터 건설사들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서 여러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데, 단지 옥외 공간의 변화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옥외공간 변화의 특징은 녹지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이었으며, 1998년에는 국내 최초로 단지 내에서 모든 차량을 지하로만 다니게 하고 지상공간은 모두 보행로로 만든

며, 단지 내 수목터널 등 각종 조경시설을 특화하여<sup>4</sup>, 주민의 옥외공간에서의 휴식, 활동을 촉진, 유도하는 디자인이 선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2, 3, 4 참조)<sup>5</sup>.



<그림 1> 분당 정자동 동양파라곤



<그림 2> 판교 봇들마을 9단지



<그림 3> 동탄 우미 린



<그림 4> 반포 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였다.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당해 분양된 서울지역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율을 기록하여(매일경제, 1998.11.5), 당시 높아진 중산층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

<sup>4</sup> “주차장이 숨으면 아파트가 뜬다, 문화일보, 2005. 6. 10

<sup>5</sup> 그림 1,2 자료 :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일상(박인석, 2013)』(315)  
그림 3,4 자료 : [www.naver.com](http://www.naver.com)

그리고 이러한 보행환경 강화 흐름은 최근 이어지는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옥외공간의 변화만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가족친화적’이라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삶의 질 등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지적 받아 온 보행권과 관련, 기존 아파트 단지 건설에 비해 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여진 것만 것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거주하는 어린이와 어른의 옥외 활동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커뮤니티의 안전성 증대 역시 기대된다. 개발국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공공책임의 최소화 원칙을 견지해오며 민간 행위자를 동원해온 개발자유주의(장경섭, 2011)는 2000년 이후 한국의 주거 공간에도 지속 적용되고 있는 바, 한국인들은 국가의 ‘공간복지’<sup>6</sup>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실한 가운데 자신의 경제력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물론 테마형 놀이터, 생태학습장, 물놀이장, 캠핑데크 등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에 특화된 시설까지 보충해<sup>7</sup>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sup>8</sup>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대

<sup>6</sup> 2007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와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여성친화, ‘가족친화’ 등을 표방하는 행정부처의 노력을 기존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 실현으로 이해하고, ‘공간복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2007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신 외, 2009)

<sup>7</sup> “분양시장, ‘키즈 특화 아파트’ 각광”, 경제투데이, 2014. 6. 17

<sup>8</sup> 단순히 ‘공원같은 아파트’, ‘전망 좋은 아파트’를 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홍보하는 최근의 흐름은 언론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관심 가져 볼까” (아시아 경제, 2013.5.4), “건설업계,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조성 붐” (뉴스토마토, 2013. 5.5), “워킹맘잡아라...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기” (세계일보, 2013.8.8), “엄마와 아이를 배려하는 ‘보육맞춤’ 아파트” (충청투데이, 2013.10.9), “분양시장, ‘키즈 특화 아파트’ 각광” (2014. 6. 17), “자녀 키우기 좋은 아파트는?” (2014. 7.8), “‘자녀 특화 아파트’ 인기 분양 데마로 부상” (이코노믹 리뷰, 2014.10.8) 등이 그 사례이다.

과거에도 자녀교육에 유리한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는 기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는 주로 학군, 학원 등 교육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단지 내 보행환경, 조경 등을 기본 인프라로 강조하고, 기타 유아 보육 기관 및 시설 설치를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바가 다르기에, 가족친화적 환경 역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Sweet, Swisher & Moen, 2005: 노신애, 2012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저출산 현상과 함께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양육자 층의 수요를 노리는 건설자본의 불황 타개 움직임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2000년대 중반, 저출산 상황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제화되기 이전부터 민간영역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만들기’에 나서 온 상황은, 거꾸로 그간 우리 보육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과정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근대화 이후 진행된 저출산은 흔히 ‘압축적 근대화’로 불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생산 영역과 충돌을 빚은 결과다(장경섭, 2009). 최근의 자녀 양육 노동 및 문화는 몇 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이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으나, 무엇보다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 특히 양육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 및 근린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근린주거 생활 영역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영위하는 장소다. 이러한 근린주거의 보행환경은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또래집단(peer group) 형성, 그리고 또래집단과 함께 행하는 탐색, 학습, 놀이 등 어린이 활동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한다. 그리고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은 이러한 근린 보행환경에서의 어린이들의 활동 행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진경(2000)은 과거 거리가 어린이와 가난한 자들의 놀이터였음을 상기시킨다. 18세기 후반까지만도 유럽에서 거리는 축제와 일상적인 놀이, 운동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어울려 노는 장소였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의 위생개혁가나 ‘박애주의자’들은 거리를 범죄를 배우고 행하는 장소로 여겨, 아이들을 집과 학교로 몰아넣고 ‘가족주의’를 도구 삼아 감시와 통제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마차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들 역시 길에서 노는 이들을 도로의 장애물처럼 여겼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영국에서는 1900년을 전후로 거리를 놀이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

지되었다고 한다(이진경, 2000)

우리나라에서도 길은 역시 예전부터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고, 각종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던 공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동네 골목길은 1960~70년대까지도 어린이들에게는 또래집단을 만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각종 탐색과 집단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양육자들에게는 보육과 양육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길은커녕 놀이터에서조차도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산업화 시기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도시의 공간은 속도와 자동차 통행,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의 이윤 회전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심뿐만 아니라 근린주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도심과 주거지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통행에 밀려 보행권이 현저히 악화된 오늘날, 근린주거의 보행환경 변화가 아동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는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과 돌봄 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 또한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보행환경 개선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 취학 전 아동과 그 양육자에 초점을 두어 서로 다른 주거 환경 - 단지 내 옥외환경이 열악한 구(舊) 아파트 단지과 그렇지 않은 신규 아파트 단지 - 에서의 아동 보행 활동과 이에 따른 돌봄 노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학 전 아동의 양육자에 초점을 둔 이유는, 우선 취학 전 아동의 생활 반경이 주로 주거 근처로 한정되기에, 이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주거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추가 출산 가능성도 높은 집단으로 열악한 근린주거환경에서 연유한 돌봄 노동 부담 및 육아 스트레스 등은 직접적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추가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며, 이를 간접 경험하는 예비 부모들까지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등 국가 전체의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부모자녀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크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서주현·김진경, 2012: 103).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Q1. 현재 아파트 옥외 환경이 아동의 독립 보행 지연에 미친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Q2. 아동의 독립보행 지연은 돌봄 노동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2. 이론적 자원 및 선행 연구

### (1) 아동의 보행환경

발달심리학자 브론펜브레너(U.Bronfenbrenner, 1976)는 아동 발달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중 특히 열악한 보행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보행 환경은 단순히 어린이의 육체적 활동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인구학에서는 수렵, 채집 사회는 농업사회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드넓은 사냥터를 떠돌았던 수렵, 채집인들이 높은 이동성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위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즉 한 아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시기가 되어서야만 어머니는 다음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R.B.Lee, 1980; M. Livi-Bacci, 1989에서 재인용)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아이의 독립성 여부가 출산 간격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출산율이 아동의 독립성 및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참고한다면, 오늘날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보인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

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보행의 다양한 기능과 권리

보행, 즉 ‘걷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른바 ‘걷기 열풍’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보행이 매우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기능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우선 보행은 인간들의 가장 원초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임금선, 2013), 프랑스의 철학자 라무르(C. Lamour, 2007)는 『걷기의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관광, 순례, 시위, 산책, 제국의 원정 등 여러 행위에서 걷기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발견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라무르는 루소의 말 - ‘우리의 첫 철학 스승은 우리의 발이다’ - 을 인용하여 걷기가 사유, 철학의 촉진제였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는 발로도 투표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걷기는 거리에서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도 가능케 하는 것이라 역설하기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보행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되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비만 등의 질병 인구가 늘어난 현대에는 건강, ‘힐링’ 담론의 유행과 함께 보행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보행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은 사람의 뇌를 자극하여 호르몬의 일종인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하는데, 옥시토신은 포유동물의 걱정, 불안 등을 덜어주고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감소시키며, 친절이나 신뢰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Kerstin Uvnas Moberg, 2003: 조남건, 2014에서 재인용). 또한 ‘국가별 비만을’과 ‘비동력수단 이용자 비율’이 반비례한다(조남건, 2013)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 늘어난 자동차 이용에 따른 운동 부족과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보행은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주목 받는 것은 보행의 여가 기능이다. 여러 여가 활동을 요인 분석기법을 통해 비교하면 달리기 등의 스포츠와 걷기는 활동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스포츠가 성격상 ‘야외활동’ 과 더욱 가까운 성격으로 분류된다면, 걷기는 시청(watch), 휴식(rest)와 더욱 유사한 성격의 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차승은, 2011).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주 올레 투어, 북촌 산책 등으로 인기를 모은 걷기 관광 역시 보행의 여가적 성격이 반영된 사례인데, 도시 공간을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활동 등은 단순히 여가의 차원을 넘어선 장소 마케팅, 도시 재생,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등으로 불리며 전세계적인 도시계획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서정열, 2013).

특히 도시의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에게 보행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노인에게 보행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한다(임금선, 2013). 어린이는 보행을 통해 탐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놀이의 원천이고, 그들 스스로 주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쇼트, 1989).

이에 보행은 ‘권리’로서 주장되기도 한다. 보행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데, 셸러(M. Sheller)와 어리(J.Urry)에 따르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된 현대 사회는 이동성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다.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자가용 운전자는 대중교통 이용자나 보행자보다 훨씬 많은 도로 공간을 점유하며, 특히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주된 피해자로 만든다.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이러한 자동차 중심 사회의 ‘보행 약자’가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힘들게 육교, 지하도를 오르내려야 하고, 이조차 어려울 때는 기본적인 외부 활동조차 제약 받는다(M.Sheller and J.Urry, 2003).

유럽에서는 1960~70년대에 보행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EU의 회의는 1989년 보행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기도 하였다<sup>9</sup>. 이러한 도시권의 일

---

<sup>9</sup> “여적 - 보행권”, 경향신문, 2012. 2. 15

중으로서의 ‘보행권’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강현수, 2010). 90년대 우리나라의 보행권 운동<sup>10</sup>은 ‘보행권’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보행환경’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으로, ‘보행약자’를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정의하였다.<sup>11</sup> 그리고 1997년 제정된 보행조례는 다섯 가지 기본조례로 ①어린이에게 안전한 거리 ②장애인과 노인에게 친절한 거리 ③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편리한 거리 ④자연이 살아 숨쉬는 거리 ⑤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제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자각적 능동성을 생활자치공간에 담아내자고 제안하였다(최정환, 1997).

이후에도 정부는 고령화와 함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의 발생에 의해 보행약자의 비율이 급증(2003년 기준, 25%)하고, 이와 함께 서울시 보행조례 등에서와 같이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2005년)’을 제정하여 도시환경에서 보행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현미, 2008). 그리고 ‘보행권’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제정, 시행하여, 과거 차량 위주의 교통 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이태리, 2013).

---

<sup>10</sup>1990년대부터 ‘녹색교통운동’과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 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람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을 비판하는 보행권 확보 운동이 일었고, 이에 서울시는 19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조례 제 3376 호)’를 정식발효하였다.

<sup>11</sup> 서울시 보행조례 제 2조

## 보행과 사회적 자본

저출산 및 재생산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보행의 기능이다. 보행은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깊다. 퍼트남(R. D. Putnam)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2000:17).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reciprocity)와 신뢰의 규범’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못지않게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퍼트남의 생각이다. 또한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거론하며, 그 첫 번째로 ‘교육과 어린이의 발전’ (2000:488), 두 번째로 ‘안전하고 유익한 동네’ (2000:506)를 꼽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은 아동 양육이며, 아동은 물론 일반 성인도 거주지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제로 도시설계 등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교외확산(sprawl)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 보행환경 악화 등으로 이웃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든 미국의 주거 환경, 도시계획을 비판하며,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해 ‘주거 시설, 상업 시설, 사무실 등을 한 건물에 수용한 다용도 지역, 보행자 친화적인 차량 통행 제한 구역, 공적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의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2000: 681).

사회학자인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의 문제를 고민하며 도시의 물리적 환경까지 거론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강화에 대한 고민은 개인화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건축, 도시계획의 주요 테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 퍼트남의 책에서도 언급된 제인 제이콥스(J. Jacobs)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가 촘촘하게 얹히고 설킨 다양한 용도를 필요로 하며, 이

런 다양성은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지탱하기에, 도시계획은 도시의 실제 생활에서 이처럼 촘촘하게 얹혀 움직이는 관계를 촉진시키고 조성하는 학문,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61:35). 그리고 현대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에버니저 하워드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을 ‘대도시의 얹히고 설키고 다면적인 문화생활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료 시민의 관리인이 되는 책임을 면제 받는 자유를 실현했다’며 비판하였다. 즉, 이들의 도시 계획은 모두 도시의 실제 작동, 사회적 자본의 기능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도시 계획, 설계라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생활가로와 보행에 주목하였다. 도시의 안전이 생활가로에서의 보행과 관계 깊다는 것이다.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거리를 걷고, 거리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보행자로,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시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 때 도시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 즉 보행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놀이터와 넓은 잔디밭이 많은 주택단지의 아이들이 동네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하였음을 관찰하였으며, 보도가 제공하는 ‘특화되지 않은 놀이’가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에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흔히 하는 놀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비율의 어른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며, 남성 도시계획가들이 언제나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비현실적인 ‘모계제 사회’를 상정한 결과, 아이와 여성들을 집 안에 가두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대체물을 살 수 밖에 없는 도시 건설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1961). 보행권의 보장과 시민들의 높은 거리 이용, 그 가운데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아이들의 독립성과 안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안전 또한 강화하는 길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렇듯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린이는 옥외공간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우며, 이에 성인 양육자와 어린이의 실내에서의 밀착은 때로는 옥외공간에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이에 어린이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여 이들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돌봄의 사회적 요구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즉 어린이의 열악한 보행권은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닌 저출산과 돌봄노동의 이슈이기도 한 것이다.

## 국가주도의 근대화(도시화)와 생활세계의 파괴

우리사회의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한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이다. 생태학적 체계모델의 관점을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를 주도한 거시체계적 힘은 생활세계라는 미시체계까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근대적 도시의 형성과 관련, 이호(1996)는 한국사회를 자본, 시민, 도시정부의 3주체가 이루어가야 할 도시정치가 없는, ‘도시정치 없는 도시’로 규정하였다. 즉 한국사회는 중앙의 정치적 힘이 도시 형태를 규정해온 가장 큰 요인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지키기 운동조차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제대로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1960~8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및 독점 기업을 중심으로 공간적·산업적 집중화와 가속화가 진행된 시기였으며, 이 시기는 중앙정부, 독점자본 대 도시 주민의 집단행동이라는 극단적 양자 대립만이 존재했을 뿐 진정한 도시 정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으며, 인간주의적 도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리 도시에 과연 중앙정부-도시 주민의 극단적 대립만이 존재하였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대로 우리 도시는 서구와는 달리 그 형성 과정에 중앙정부의 막강한 힘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정치적 장악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흔히 ‘개발국가’로 일컬어지는 바, 자본을 대신해 국가가 자본주의적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구자인(1997)은 ‘도시는 근대적 사회체제, 특히 자본주의적 체제가 공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그 자체’라는 하비(D. Harvey)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인구와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을 근대적 산업체계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인간관계와 조직으로 급속하게 재편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정의하였다(1997: 259). 그리고 자본의 이윤욕구가 도시를 지배하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팽창이 교통혼잡과 오염, 공동체성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안으로 ‘인간주의 도시’를 주창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인간의 공

적 담론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복원을 통한 생활세계의 구체적 복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박형용(1997) 역시 제3세계에서 근대화는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도시계획은 ‘그것이 지향해야 할 바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식민화와 경제성장의 움직임에 매몰되는 특징이 있다’(1997: 76)고 밝힌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제3세계의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화를 분석하고,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넘어서 ‘생활세계의 복원’과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생활세계의 복원’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시화 과정에서의 생활세계의 변화 과정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는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박철수 2006; 발레리 줄레조, 2007 ; 전상인, 2009 ; 박인석, 2013 ; 박해천, 2013 등). 그러나 보육과 관련하여 근린주거 환경, 특히 보행권의 문제에 세부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들이 보행의 보편적 기능 및 한국 도시 발전의 거시적 맥락을 짚었다면,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이슈와 관련하여 도시 내 생활세계의 영역, 특히 재생산과 관련한 생활세계의 문제로 보행환경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2) 보행환경과 아동돌봄

아동 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행해지는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로 아동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을 확충해가는 활동과 공적 지원’이다(이영 외, 2009: 이봉주,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아동 돌봄의 정의에 비추면, 거시적인 사회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근린 주거 영



역에서의 ‘위험’과 ‘위기’ 요인의 변화는 이와 관련한 ‘보호’와 ‘지원’, 즉 돌봄 노동의 개념 역시 사회적으로 재정의한다.

## 어린이의 돌봄자원인 보행능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양육자가 인식하는 위험, 위기 요인이 적은 경우 돌봄 노동의 수고는 덜어지며, 그렇지 못한 경우 돌봄 노동의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이는 돌봄 대상이 되는 주체의 ‘돌봄 자원’과도 관련된다. 돌봄 자원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크게 경제, 사회, 건강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하는 외적 자원, 스스로 동원하는 내적 자원으로도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인의 돌봄 자원의 하나로 꼽히는 내적인 ‘건강 자원’과 같이, 돌봄 대상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도 돌봄 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선희, 2007)

어린이의 경우 주요한 신체적 능력의 한가지인 ‘보행 능력’이 어린이 스스로의 돌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몸도 조절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 기가, 앉기, 서기를 거쳐 생후 1년을 전후로 걷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활동한다. 즉 보행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또한 인간의 정서 및 인지, 사회성 발달과 밀접히 연관된다. 즉 걷게 되면서 주위를 탐색하게 되고, 주변의 물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얻어왔던 기쁨을 스스로의 의지로서 찾는다는 것은 커다란 발전이며, 자율감의 획득으로도 풀이된다. 즉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주위로부터 격려 받게 되면 자율성을 얻게 되며 (조복희·도현심·유가효, 1989 ; 133), 이는 독립성 발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행능력은 어린이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 돌봄 자원으로 기능한다. 보행을 통해 자유로운 탐색과 학습 능력 증진이 가능하며,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등 유년기의 최대 발달 과업인 ‘사

회화’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도시 사회에서 어린이의 보행 능력은 단순히 ‘생후 1년 전후’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육체적으로는 생후 1년 전후로 보행 능력을 갖출 수 있어도, ‘사회적 보행 능력’은 환경이라는 변수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고층 건물, 이방인들에 둘러싸인 도시 환경에서의 보행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습득할 때 가능하다. 과거의 어린이들이 독립적인 보행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을 밟았던 것과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은 보호자를 대동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화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친 이후에야 독립보행이 가능하다. 즉 아동의 독립보행에 성인의 돌봄노동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양육자의 환경인지

또한 이러한 보행환경-돌봄노동과 관련, ‘환경 인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객관적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돌봄 노동의 형태는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의 환경 인지(cognition)에 따라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환경 행태(environmental behavior)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간의 ‘환경 인지’와 행태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인지란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현재 및 미래의 인간 행태를 연결 지어주는 앎(awareness) 혹은 지식(knowledge)를 얻는 다양한 수단” (Moore and Golledge, 1976: 임승빈, 2012에서 재인용)으로, 개인의 감지(sensation), 기억(memory), 태도(attitude), 믿음(belief) 등을 포함하는,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앎에 관련되는 것은 환경 지각, 환경 인지 모두에 속한다(임승빈, 2012: 50)

즉 인간은 외부의 생태적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들 자극을 다시 개인적 경험과 기억에 의거해 재구성하여 해석하므로, ‘생태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을 해석하는 개인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Holahan, 1982: 임승빈,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환경행태에 관한 이론을 돌봄 노동의 문제에 적용하면, 동일한 물리사회적 환경에서도 어떠한 돌

봄 노동을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이들 양육자들의 과거 경험과 그 영향을 받는 현재의 환경인지 또한 중요 변수가 된다. 과거의 사회물리적 환경이 현재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요소이기에, 현재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과거의 경험까지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 우리사회의 근린주거 보행환경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보행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근린주거지역에서의 보행 환경에 따른 사회적 관계 유형, 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고은정·이경환·안건혁, 2006; 박지혜, 2012; 김병석·박진아, 2013 등). 그리고 저출산 등과 관련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보행 환경-돌봄 노동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도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2013)』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정책에서는 주거와 환경 문제가 그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 모성보호 외에도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완화, 안전한 주택도시환경 조성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근린환경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전성(도로, 보행, 범죄안전), 육아친화성, 생활편의성을 들고 있다. 특히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고 추가 출산 가능성이 큰 30~34세 여성집단에서 육아친화성과 안전성이 출산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3: 205)을 보고하여, 보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안전성의 요인이 출산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양적 방법으로 입증하고 있다.

노신애(2012)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실제 지역사회가 돌봄을 지원하는지, 지역사회환경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

함을 지적하였는데,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보육시설, 놀이 공간 등)과 사회적 자본이 모두 양육자의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백혜선·박영기(2002)는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옥외생활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보행 친화적 옥외 공간이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 않은 단지에 비해 옥외활동이 활발함을 보고하였는데, 옥외공간의 주 이용자는 주로 유아, 어린이, 주부 계층으로, 보행 친화적 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의 공놀이, 자전거, 킥보드 등 보다 동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특히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단지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동반한 놀이 행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일반적인 성인간의 이웃 교류, 휴식, 대화 행위 등이 더 활발해, 옥외공간이 성인의 양육노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거동 주변의 옥외공간에서 유아들의 활동비율이 높아, 단순히 놀이터 뿐만 아니라 출입 동선이 이어지는 생활공간에서의 보행안전도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단지의 보행환경-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주택가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단독주택지 담장 허물기 사업 후 물리적 변화 요소가 자연적 감시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병석 외(2013)는 주민의 가시권이 넓어지면 자연적 감시 기능 향상, 주민의 범죄 불안감 감소, 이웃교류 증가, 아이들의 활동 증가가 나타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 변화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고은정 외(2006) 역시 커뮤니티 의식을 소속감, 연대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의할 때, 보행환경의 질 향상이 이러한 커뮤니티 의식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 김승남·안건혁(2010)은 초등학교의 통학 수단 선택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고찰에서 어린이의 독립통행 여부는 차량 통행량 및 속도, 통학시 도로 횡단 수, 도로의 폭, 주차 환경 등 교통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일반 요인들이 결합해 양육과 관련한 부

모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행환경이 돌봄 노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 행태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렇듯 단순히 환경-행태의 직접적 관계를 살피고, 환경변화에 따른 인간 행태와 커뮤니티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연구도 발견되는데 김태훈(2013)의 연구가 그것이다.

한국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실천적 설계 조건을 연구한 김태훈은 보행환경이 개선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에게 질적 면접 방법을 이용하여, 개선된 보행환경이 실제 이들의 삶과 커뮤니티성에 미친 실제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보행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은 이웃과 우연히 잦은 만남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함이 관찰된다. 그리고 이웃과 교류가 적은 사람일수록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웃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교류가 더욱 적어지는 악순환도 반복된다고 보고한다.

또한 아파트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설치한 커뮤니티 센터 등도 단순히 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개인적 이용으로만 쓰이는 경향, 아파트 관리 혹은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외부에 마련된 파라솔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는 현상, 녹지공간을 ‘텃밭’이나 개인용 정원으로 가꾸지 못하고 그저 ‘관상용 공간’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현상, 아이들이 보행권이 보장된 외부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적 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이 또한 놀이 금지 등 제약을 받는 상황 등을 관찰하여, 훌륭한 옥외 공간 존재에도 불구하고 애착, 장소성과 연관되는 ‘거주(dwelling)’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전통적인 공동사회적(게노센샤프트) 특징은 아파트 단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며, 커뮤니티 발생에는 종교나 아이, 애완견 등 매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특히 가장 빈번한 커뮤니티 형성 방식은 자녀로서, 자녀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를 아파트 내 가장 대표적

인 커뮤니티로 보고한다. 즉, 애초에 예상한, 혹은 기대되었던 것과 달리 아파트 주민의 삶은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보행환경의 개선과 인간 행태 및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도, 그 관계가 단순히 기계적인 형태 이상임을 이야기한다. 김태훈의 현장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행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인간의 환경 인지라는 주체적 해석과정의 영향을 받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돌봄 노동의 문제에서는 보다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돌봄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인지, 심리적 상태와 경험이 그 결과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자의 환경 인지는 이들의 행태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환경과 돌봄노동의 문제를 관찰함에, 현재 양육자들의 환경 인지 역시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과 주관적인 환경 인지라는 변수가 이들의 돌봄 노동에 끼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현재 양육자들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객관적인 보행환경과 아동 돌봄 노동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서로 다른 보행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취학 전후 아동의 양육자를 질적 면접(1:1면접)하였다. 돌봄 노동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양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육자 자신의 생활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감정을 보다 세밀히 드러내고, 밝혀줄 방법으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보행환경이라는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외의 변수가 - 주택 형태, 보육/상업/문화 시설 등 근

린 환경 변수 - 가능한 통제되는 동일생활권역인 수도권 내 신도시 지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산본 신도시 내에서 보행 환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2개 아파트 단지 - 보행환경이 개선된 아파트 단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 - 를 선택하여, 양 단지 내 거주하는 양육자를 주로 인터뷰하였다 (총 9명).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거주 지역은 다르지만 비교 가능한 생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3인을 또한 참고 대상으로 참여시켰다.

#### 4.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삶터로서의 공간은 우리가 꾸려가는 사회적 삶의 관계나 질서를 그대로 투영한다. 또 한편 공간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규정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한다. 공간 속에서 인간은 공간 형성의 주체이면서 또한 공간을 구성하는 객체가 되기도 한다. 공간은 그 속에 진입하는 이들의 행동거지와 의식을 틀 지운다. 공간화된 사회(spatialized society)가 존재하고, 사회화된 공간(socialized space)가 존재한다. 즉 공간과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조명래,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사회의 상호작용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행환경-돌봄노동의 관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변화된 아동의 보행환경이 돌봄 노동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돌봄 노동이 다시 아동의 보행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의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길의 의미이며 둘째는 사회적 자본이다. 우선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행은 여러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보행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길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된다. 사회는 길이라는 공적 공간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요청하기에, 이러한 공간 위에서의 보행활동 역시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길과 보행의 의미,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아동의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사회 속에서 요청되는 길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놀이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풍부한 의미와 용도를 가졌던 길은 산업화 과정에서 ‘통행’ 목적에 집중되게 되었으며, 이에 근린생활영역으로서의 길의 성격은 퇴색되었다. 이는 근린주구가 생활의 주요 무대가 되는 아동과 양육자들에게 특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길의 의미 변화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다.

둘째는 사회적 자본이다. 보행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 공간에서 가능하다. 사회적 자본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의 공동체성은 안전과 관계되며, 이는 특히 사회적 위험, 위기 요인과 결부되어 재구성되는 돌봄 노동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돌봄 노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을 논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특히 아동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이다. 통상 동원 가능한 성인들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을 논하는 경향이 있으나, 형제자매 또는 또래 집단 등 아동 상호간의 사회적 자본은 역시 돌봄 노동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요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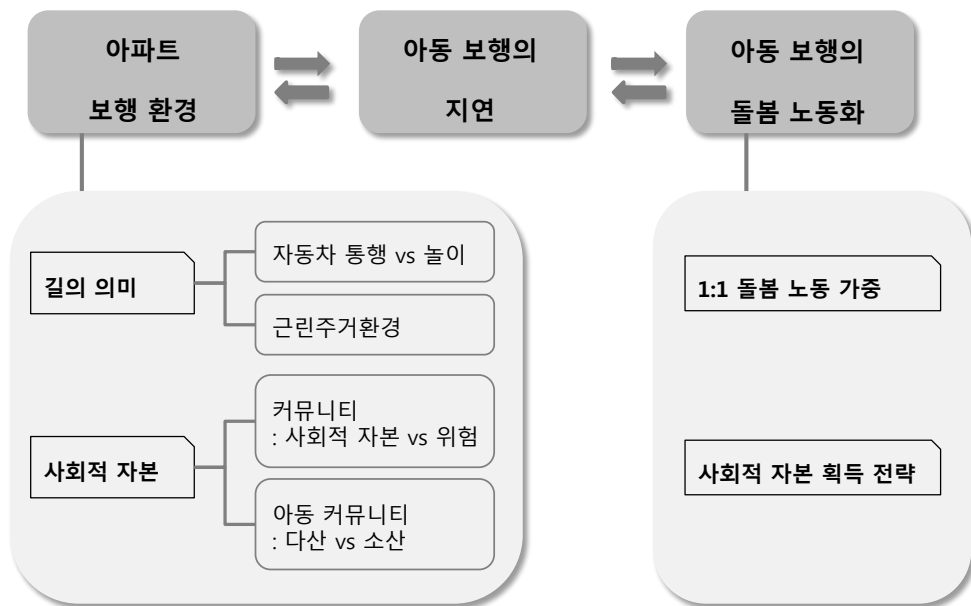
아동보행의 돌봄 노동화 역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1 돌봄 노동의 가중화 현상이다. 인간이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타고난 보행 가능 연령 (통상 1돌 전후)과 별도로 옥외공간을 보행할 수 있는 연령은 사회적 차이를 보인다. 즉 ‘사회적 보행 연령’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아동 독립성의 기본 조건과 관련되며 보행의 돌봄 노동화를 야기하는 첫째 조건이 된다. 즉 아동이 독립 보행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양육자의 1:1 돌봄 노동이 가중된 오늘날의 상황이 아동보행의 돌봄 노동화와 관련해 우선 살펴보아야 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돌봄 노동 가중에 따른 사회적 자본 획득 전략이다. 이에는 양육자들이 위험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cognition)의 차이가 변수로 작용한다. 객관적인 환경과 별도로 양육자들이 형성하는 환경 인지는, 이들로 하여금 아동을 둘러싼 위험과 위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정의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돌봄 노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인지에 따라 양육자들은 아동 보행의 위험 요인에 대해 서로 다른 돌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즉, 양육자들의 환경인지를 매개로, 이들의 1:1 돌봄 노동 가중에 따른 사회적 자본 획득 전략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분석틀

본 연구에 질적 면접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산본 신도시 내에서 보행 환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2개 아파트 단지 - 보행환경이 개선된 아파트 단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 - 를 선택하여, 양 단지 내 거주하는 양육자를 주로 인터뷰하였다(총 9명).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거주 지역은 다르지만 비교 가능한 생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3인을 참고 대상으로 참여시켰다.

아이의 단지 내 독립 보행 및 독립적 활동 여부, 아이들의 옥외활동 형태, 양육자의 옥외공간 선호 및 활용 정도, 단지 내 이웃과의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 양육자의 성장환경 및 양육관, 이러한 사항들과 관계된 육아 스트레스 정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러한 질적 면접에 응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명칭    | 인구학적 특성 |                     |    | 연구주제 관련 특성          |                 |             |                      |               |
|----|-------|---------|---------------------|----|---------------------|-----------------|-------------|----------------------|---------------|
|    |       | 나이      | 양육 (손)자녀            | 교육 | 취업 여부/직업            | 양육 지원 가족 (남편 외) | 현 아파트 거주 기간 | 新 아파트 거주 경험 (거주시 기간) | 거주 지역         |
| 1  | Y 할머니 | 69세     | 2남 (7세, 5세)         | 대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손자 부모           | 22년         | 없음                   | 조사 대상 지역 (산본) |
| 2  | P 할머니 | 65세     | 1남 (7세)             | 고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손자 부모           | 22년         | 없음                   |               |
| 3  | W 엄마  | 36세     | 1남 (7세), 1녀 (3세)    | 고졸 | 비취업 / 전업주부          | 없음              | 6년          | 없음                   |               |
| 4  | J 엄마  | 36세     | 1남 (7세), 1녀 (4세)    | 대졸 | 취업(전일제)/ 교사(육아휴직 中) | 친정 엄마           | 22년         | 없음                   |               |
| 5  | P 엄마  | 34세     | 1남 (7세)             | 대졸 | 취업(전일제)/회사원         | 시부모             | 6년          | 없음                   |               |
| 6  | S 엄마  | 38세     | 1남 (5세)             | 대졸 | 취업(전일제) /쇼핑몰 운영     | 없음              | 3년          | 없음                   |               |
| 7  | H 엄마  | 32세     | 1남 (7세)             | 대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친정 부모           | 6년          | 없음                   | 안산            |
| 8  | X 엄마  | 37세     | 2남 (9세, 5세)         | 대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없음              | 3.5년        | 3.5년                 | 조사 대상 지역 (산본) |
| 9  | Y 엄마  | 42세     | 2녀 (9세, 8세), 1남(5세) | 대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없음              | 1년          | 1년                   |               |
| 10 | C 엄마  | 34세     | 1녀 (8세), 1남 (5세)    | 대졸 | 비취업/ 전업주부           | 없음              | 2년          | 2년                   |               |
| 11 | B 엄마  | 37세     | 1남( 10세), 1녀 (4세)   | 대졸 | 취업(전일제)/회사원         | 친정 부모           | 1년          | 6년                   | 서울            |
| 12 | K 엄마  | 39세     | 1녀 (7세)             | 대졸 | 취업(전일제)/ 교향악단 연주자   | 없음              | 2년          | 4년                   |               |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제 2 장. 아파트의 보행환경

### 1. 일반 사항

우선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양 아파트 단지의 일반 사항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장소는 경기도 군포 산본 신도시의 2개 아파트 단지이다. 산본은 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로, 1990년 초반 입주가 시작된 5대 신도시 중 하나다. 90년대 초반 지어진 다수 아파트들은 현재 준공 년 수 20년을 넘기며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후반, 보행로 등 옥외공간을 강화한 아파트들이 출현하기 직전 세대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의 34%를 점유한다. ‘고령 아파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단지들의 옥외환경 문제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도 볼 수 있다.

산본은 도시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신도시의 특성상, 13여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산본 신도시의 도시계획 시설(공원, 체육시설, 상업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각 단지 내 옥외 공간 등 환경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두 단지에서의 생활은 단지 내 옥외 환경이 주요 변수가 되므로 상호 비교군으로 삼기에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준공 20년 이상 된 각 단지는 비슷한 단지 설계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본 신도시에 한편으로 준공 4년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90년대 초반, 산본 신도시 설계 시 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지 못한 저층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곳인데, 현재는 산본 신도시에서 가장 최신의 단지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90년대 후반기부터 설계되기 시작한, 옥외공간을 강화한 아파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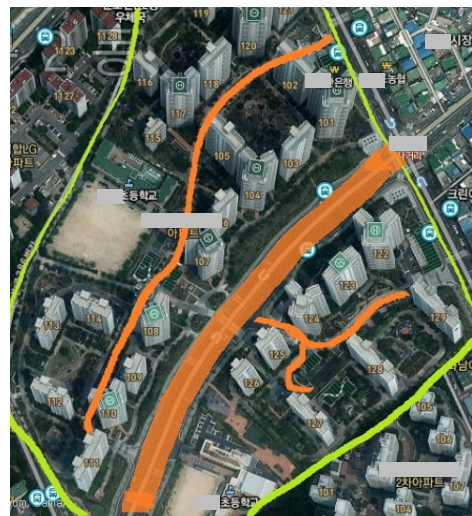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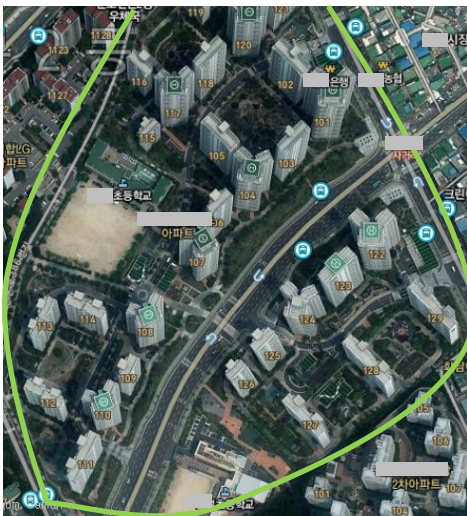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본 신도시의 준공 20년차 아파트 단지(편의상 ‘구 단지’로 부른다)와 4년차 아파트 단지(편의상 ‘신 단지’로 부른다)의 옥외환경을 보행공간 중심으로 비교하고, 거주하는 취학 전후 아동의 양육자를 심층 면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거주형태인 아파트에서의 돌봄노동에 보행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구 단지를 대표하여 비교군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1992년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만 22년 정도 된 노후 아파트 단지이다. 3개 건설사에서 지은 단지로 총 2,151세대(29개동, 최고 26층, 면적 58~161m<sup>2</sup>)로 인근에 각 1개의 초 중 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동일 생활 권역이다. 신단지는 2010년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만 4년 정도된 단지이다. 1개 건설사에서 지었으며 총 2644세대로, 세대수 만으로는 구 단지에 비해 약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총 29개동, 최고 34층(면적 84~212m<sup>2</sup>)로 동 수, 층 수 등에서는 구 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중앙의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초등학교가 각 1개씩 위치하며 각 초등학교 중심으로 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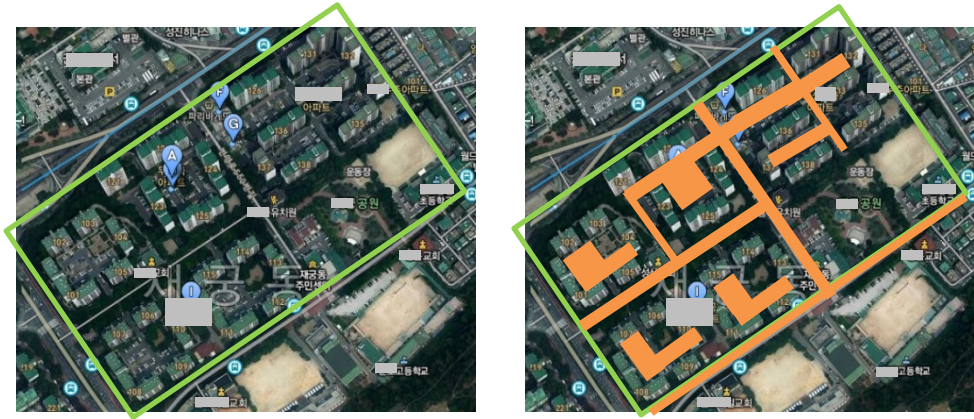
## 2. 보행 공간 비교

### (1) 조감도 비교

1) 신 단지 : (左) 원본 / (右) 도로, 주차장 표시(주황색)



2) 구 단지 : (左) 원본 / (右) 도로, 주차장 표시(주황색)



조감도를 통해 본 두 단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도(그림에서 주황색 표시)의 면적이다. 1) 신 단지의 경우, 도로는 단지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만 최소한으로 나 있다. 게다가 도로의 형태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속도를 줄이는 교통정온화(traffic carlming)효과까지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은 면적의 도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간은 모두 녹지와 보행로, 휴식, 운동 시설, 놀이터 등 주민의 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동의 주민이 각 시설로 이동하기까지 제약이 없다.

반면 2) 구 단지는 격자형 구획에 직선의 도로가 눈에 띈다. 각 주거동 마당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동 앞 주차장까지 모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단지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중심을 차지하며, 보행자는 마치 차를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행로가 주변화되어 있고 보행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 (2) 보행환경 세부 비교

### 1) 신 단지

신 단지의 경우 우선 보행로가 넓다. 이에 길은 오가는 여러 행인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와 지나가는 행인이 부딪히거나 서로 불편을 겪을 일이 적다. 보행로간 연결성도 우수하며 보행 욕구가 일도록 보행로 인근 조경과 바닥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단지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주차장 인근에서 크게 휘어져, 자동차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도 자동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제어한다. 도로는 2차선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를 노상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노상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진 보행로가 많다. 이 단지에서 지상에 차량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은 단지 입구의 상가 근처 뿐이다. 그 외의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는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출입이 빈번한 단지 입구나 학원 차량이 임시 주차하는 곳 등에는 어른과 아이가 동반하도록 표지판이 서 있어, 이 곳을 제외하면 아이들의 안전 보행이 비교적 보장됨이 우회적으로 암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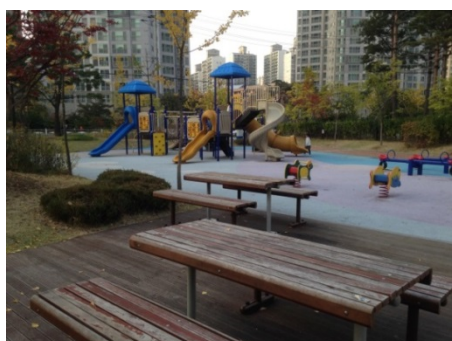


그리고 공터와 같은 넓은 녹지공간, 휴식 시설, 운동 시설 등이 많고, 각 주거동 가까이에 분산 배치되어 거주민의 이용을 촉진한다. 그리고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무 장애(Barrier-Free)로 보행로와 각 공간을 연결하여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친화적이다. 녹지 공간은 관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활동을 위해서도 배려한 공간이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잔디밭 등 녹지 공간이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울타리 등으로 보호되는 반면, 이곳의 녹지 공간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단순 관상이 아닌 활동을 통한 거주성(dwelling) 목적이 강화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시설들로 특화된 어린이 놀이터가 여러 개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외진 곳에 격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터, 초등학교 앞, 보행로 등의 바로 옆에 있어 이용이 촉진되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활동 및 감시와도 공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놀이터 옆에는 마주보고 앉는 식탁과 벤치 등 휴식 공간이 있다. 이는 어린이와 함께 나온 양육자들간의 휴식 외에도 음식 나누기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보행로, 휴식 시설 등 각종 시설이 보행 환경의 질을 높이지만, 보행을 가장 촉진하는 것은 녹지이다. 무채색의 아스팔트와 회색 벽 대신 녹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단지 전체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상태는 옥외 공간에서의 활동을 크게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신 단지의 특성은 미니 폭포 등 관상용 목적의 공간도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잔디밭과 나무 등에 한정 되었던 구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옥외 공간이 아파트 단지의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였음을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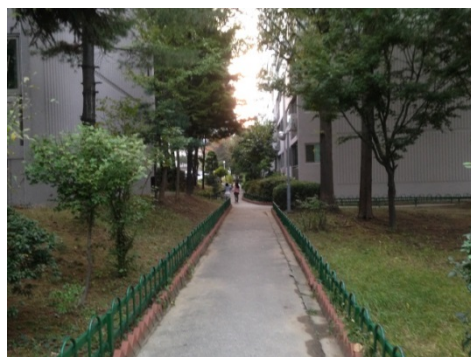
## 2) 구 단지

한편 구 단지는 격자형의 도로들이 넓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 단지를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를 구조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 좁은 보행로가 많고 횡단보도도 적어, 도로를 건너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보행로의 연결이 좋지 않아 차와 사람 등이 뒤엉킨다.





주거동 바로 앞의 마당은 주차장이다. 지상의 많은 공간이 자동차를 위해 쓰이고 있다. 넓은 주차장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된 차량이 많다. 이에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해진다. 많은 공간이 차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주거동 인근의 녹지와 휴식 공간은 부족하며, 또한 셋길과 같은 보행로가 있지만 단순히 통과를 위한 공간으로 느껴질 뿐이다.



놀이터도 대부분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하며, 학교나 공원 등 여타 어린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의 연결성도 부족하다.



산본 신도시 내에도 중앙공원, 체육 공원 등이 있어서 축구,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거리를 감수하고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단지 내에도 운동 시설, 휴식 시설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 역시 단지 내 소공원에 집중되어 있고 각 주거동과는 떨어져 있다. 이에 어린이들은 소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야 한다. 주거동 인근에 운동 시설, 휴식 시설, 공터를 분산 배치한 신 단지와 대비된다.

어린이 놀이터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놀이터가 주거동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된 곳에 위치할 때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놀이터 만족도가 낮은 단지는 놀이터간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놀이터 이동 동선과 차로가 교차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신은주, 2008). 즉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 있어도 어린이의 주거동과 떨어져 어린이의 이동 동선에 부담을 주게 되면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마주보도록 하여 주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만한 탁자, 벤치 등이 없어, 음식 나누기를 하려면 돛자리를 준비해 와야 할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통과 차량과 녹지의 부족이 보행자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한다. 속력을 내어 움직이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도 길을 건너고

자 할 때는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바둑판과 같이 격자형 도로를 내어 교차로가 많아 사고의 위험 또한 높다. 불안정한 마음이 옥외 보행이나 기타 활동을 촉진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신 단지와 가장 대비되는 요소이다.





### 3. 보행활동 비교

#### (1) 일반 활동 비교

##### 1) 신 단지

안전한 보행로가 있기에 놀이터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길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 공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많다. 긴 동선이나 넓은 공터가 필요한 놀이가 용이한 것이다. 보행로가 넓어 보행자를 방해할 가능성도 적다. 미니 축구장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주거동 앞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장소가 넓어 많은 어린이들이 어울릴 수 있다. 또 김태훈(2013)의 관찰과도 같이, 길 주변에서 다양한 구조물을 활용하여 비정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어른 등 성인들의 자전거 이용도 활발하다. 자전거 거치대마다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어 있고, 자전거 의자는 깨끗한 것이 많아, 흔적만으로도 자전거 이용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운동 시설도 각 주거동 앞에 있어 주민들은 운동을 쉽게 즐길 수 있고, 주거동 인근에서 유아와 양육자들의 활동도 눈에 많이 띈다.



## 2) 구 단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역시 있으나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하다. 자전거 거치대에는 먼지가 앉은 자전거가 많아, 이용이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길에서 공 놀이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좁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또한 놀이터 옆 벤치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어린이



들이 앉아 있어, 비활동적인 놀이가 실외에서도 연장됨을 알 수 있다.



위 친구 단지 간의 공간, 활동 상의 내용들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옥외 보행 환경의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거주민의 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 구 단지   | 신 단지   |
|--------------------------|--|--|
| <b>옥외 환경<br/>(전체 구성)</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를 위한 공간(도로, 주차장)이 단지 중심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주거동과 보행로가 주변에 배치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 및 녹지공간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지하화</li> <li>- 녹지·보행공간이 대다수 공간 점유</li> </ul> </li> </ul>  |
| <b>옥외 환경<br/>(세부 요인)</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속도 중심의 도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선의 넓은 도로가 단지 입구부터 각 주거동 앞 넓은 주차장까지 연결</li> <li>- 주차장은 물론 도로의 노상주차 등으로 사고 위험 높음</li> </ul> </li> <li>○ <b>보행 친화성이 낮은 보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고 삭막한 보행로</li> <li>- 보행로간 연결성이 낮음</li> <li>-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음</li> </ul> </li> <li>○ <b>휴식/녹지 공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공간 부족</li> <li>- 잔디밭 등 녹지에 출입제한경계 표시로 관상용 목적임을 분명히 함</li> <li>- 주요 휴식 시설이 단지 내 특정 공원에 몰려 있으며, 보행약자의 접근 어려움</li> <li>- 단순 휴식 외 이용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휴식 시설 부족</li> </ul> </li> <li>○ <b>어린이 놀이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가 어린 연령대 아동을 위한 단순 놀이기구로 구성됨</li> <li>- 공놀이, 자유놀이를 위한 넓은 공터 부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전을 고려한 도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곡선 도로로 자동차 속도 통제 (Traffic Calming)</li> <li>- 노상 주차 금지로 옥외 시야 확보 등 안전 유리</li> </ul> </li> <li>○ <b>보행 편의성이 높은 보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고 쾌적한 보행로가 인근 녹지 및 휴식 공간과 어우러져 보행 욕구 자극</li> <li>- 보행로간 연결성 우수</li> <li>- 무 장애(Barrier-Free)로 보행약자 친화적</li> </ul> </li> <li>○ <b>휴식·녹지 공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녹지가 심리적 안정감 부여, 옥외 활동의 욕구 자극</li> <li>- 녹지와 보행로 간 경계가 약해, 정주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가능</li> <li>- 주거동, 커뮤니티 센터 등 인근에 휴식 공간 배치로 주민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li> <li>- 어린이 놀이터 등 인근에 마주보는 휴식 공간 배치로 양육자 배려 및 마주 볼 수 있는 탁자 등 배치로 이용자간 상호 작용 촉진</li> </ul> </li> <li>○ <b>어린이 놀이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놀이터</li> <li>- 잔디 축구장, 잔디 공터 등에서 다양한 공놀이, 자유놀이 가능</li> </ul> </li> </ul> |
| <b>어린이<br/>옥외 활동</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험한 길놀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간 연결성이 낮아 자전거 등의 사고 위험 높음</li> <li>- 길놀이 어려움</li> </ul> </li> <li>○ <b>창의적인 비정형 놀이 어려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및 보행공간이 삭막하여 다양한 구조물을 활용한 창의적 놀이 어려움</li> </ul> </li> <li>○ <b>개인적·비활동적 놀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터가 있어도 자갈 바닥, 삭막한 주변 환경 등으로 옥외 활동 욕구 반감</li> <li>- 딱지 치기 등 좁은 공간을 활용한 놀이</li> <li>- 스마트폰 등 개인적·비활동적 놀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전한 길놀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보행로간 연결성이 필요한 활동 촉진</li> <li>- 넓고 안전한 보행로에서 동적인 길놀이를 하는 어린이가 다수 관찰됨</li> </ul> </li> <li>○ <b>보행로의 다양한 구조물 등을 활용하여 숨바꼭질 등 다양한 비정형 놀이</b></li> <li>○ <b>집단놀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넓은 장소 (주거동 앞 공터, 보행로, 잔디 광장 등)에서 동적인 집단 놀이 (축구, 야구, 술래잡기 등)</li> </ul> </li> </ul>   |

<표 2> 신 구 단지 옥외 환경 및 어린이 옥외활동 비교

## (2) 취학 전후 아동의 활동 비교

그러나 관찰한 바로는 돌봄 노동과 관련된 취학 전후 아동의 활동은 신 구 단지의 차이가 크지 않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취학 전후 - 특히 취학 전 - 연령의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돌봄 노동이다. 근린주거의 보행환경에 따라 이들 집단이 돌보는 아동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얼마나 보장되며, 이에 따라 돌봄 노동 부담도 얼마나 경감될 수 있을지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 관찰한 바에 의하면 취학 전후의 아동들은 신 구 단지 모두 양육자의 1:1 관리 하에 옥 외 활동을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놀이터 등 유아들의 놀이 공간에서는 신 구 단지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양육자들이 자신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었다. 자유로운 길 놀이는 신 단지에서 조금 더 두드러졌지만 양육자 없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다음 장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서론의 문제 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오늘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상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안전한 어린이의 활동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들이 아이들에게 독립 보행을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현재의 물리적 환경으로만 돌려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아동의 독립 보행이 지연되는 요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간과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상황이란 세대를 건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3 장. 아파트 보행환경과 아동의 독립 보행 지연

근대교통수단은 어린이를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요인으로 교통사고를 등장시켰다. 또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 과정은 개발자유주의를 기조로 모든 자원을 양적 성장에 집중하며 재생산과 관련한 부담은 민간과 가족에 전가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생활공간의 일부였던 길은 ‘통행’ 목적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었고 생활영역으로서의 길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이렇듯 악화된 보행환경은 일반 성인은 물론, 길 위에서의 집단 놀이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아동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공공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길을 상업화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유지’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부터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보행환경의 강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시장에 소구, 소비되고 있다. 열악한 보육 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여전히 재생산에 필요한 요건인 근린주거환경에 대한 투자를 민간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노동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보행환경은 아동의 활동 및 돌봄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양육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의 보행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아동 돌봄 노동의 최소한의 정의에 따르면 돌봄 노동은 환경적 위험 요인과 주체의 보호 요인의 결합이다. 아동을 둘러싸고 어떤 위험, 위기 요인이 감지되며, 이에 양육자가 어떤 보호의 노력으로 대응하게 되는지가 돌봄 노동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눈 여겨 볼 것은 돌봄 주체에 따른 환경인지의 차이이다.

## 1. 어린이의 독립 보행 시기 지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마당에서 흙 갖고 놀고.. 그리고 컸어요...애들을 밖에 내보낼 때 불안하지는 않았고, 잠시만 안 보이면 찾았지만...그냥 저절로... 두 세 살 쯤, 걸을 줄만 알면 밖에 나가 노는거야, 그 때는...”(Y 할머니)

인간의 독립은 신체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생후 1년을 전후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과 탐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며, 이를 통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키워간다. 현재 손자 2명의 양육을 돕고 있는 60대의 Y할머니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키우던 시절인 70년대 주택가에서는 아이들이 ‘걸을 줄만 알면 밖에 나가 놀았다’고 한다. 즉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 획득한 보행 능력이 사회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동들은 어떠할까? 이들이 생물학적 보행 능력을 확보하는 연령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보행 능력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재 아파트 단지의 아동들에게 양육자들은 언제 처음 옥외로의 독립 보행을 허락할까?

“첫째를 밖에 혼자 내보내 본 건... 둘째가 태어나면서 5살 때 집 앞 도서관에 보낸 거예요.” (W(男) 엄마, 구 아파트 거주)

“다섯 살 때, 그러니까 둘째가 생기고 나서.” (B(男) 엄마, 신/구 아파트 거주)

“7살 들어, 요즈음이에요...자전거를 탄다던가, 심부름, 할머니 집에 갈 때 등 가까운 거리 갈 때 혼자 가게 되었어요.” (J(男) 엄마, 구 아파트 거주)

“예전에 우리랑 나가야 할 때는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7세) 혼자 막 나가니

까... (P(男) 엄마, 구 아파트 거주)

“제가 올해 2월에 아이를 처음으로 혼자 심부름을 보냈어요(7살). 아파트 상가에 우유 사오라고.” (K(女) 엄마, 신 아파트 거주)

면접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빠르게는 5세부터 시작해 취학 연령인 7~8세경, 독립적인 옥외 보행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옥외 독립 보행의 기회가 2~3세 경의 아동들에게 주어졌던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의 독립보행이 매우 지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획득의 지연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의 가중과 연결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5세)부터 아이를 홀로 내보낸 양육자들은 그 이유를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수렵 채집인들이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즉 첫째 아이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이후 자녀의 양육 부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둘째가 나오기 전부터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 둘을 끼고...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나보고 ‘독하다’고 하는데... 둘째가 안 나왔으면 W를 혼자 내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W엄마, 구 단지 거주)

“그 전에는 웬만하면 데리고 나갔지만, 둘째가 생기고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 둘째가 잔다던가, 수유를 해줘야 한다던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려가 있어’ 했지” (B엄마, 신 단지 거주 시)

W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둘 모두 ‘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큰 아이의 독립 보행을 재촉했다고 한다. B엄마 역시 젖먹이 아기의 양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역시 큰 아이를 옥외로 내보냈다. 양육, 특히 영유아 양육이란 양육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요구하

는 노동으로, 옥내에 돌봄 노동을 요구하는 아이가 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양육자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이에 양육자들은 그 전까지 돌봄의 대상에 머물던 큰 아이에게, 스스로 자신의 돌봄 자원을 조금이라도 가동하기를 원하게 된다. 또한 생후 만 1년을 넘어 스스로의 보행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동에게는 커다란 발달 과업을 성취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동은 스스로의 돌봄 자원을 동원해 양육자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며,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양육자의 집중적인 돌봄 노동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아동의 기초적인 독립 활동을 어렵게 한다. W엄마와 B엄마는 과거에 비해 훨씬 지연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5세에 큰 아이의 독립 보행을 허락하면서도, 이를 자녀가 생물학적 발달에 따라 당연히 성취해야 할 수준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명한다. W엄마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독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70년대 아이를 키운 Y할머니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는 오늘날 아파트 단지에서 5세 아동이 홀로 독립 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합의되는 상황은 아님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아파트 단지의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전후가 되어야 독립 보행을 한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 ‘심부름’ 등으로 시험 삼아 연습을 시작하는 정도이다. 보행을 기준으로 할 때, 과거에 비하면 아동의 기초적인 독립성 발달이 매우 지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양육자가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7세 보다 이른 나이의 아동 독립 보행은 사회적으로 양육자를 ‘독한 엄마’로 만드는 일이다. 통상 ‘상식’과 관계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의 유명한 정의를 빌면 ‘실재의 사회적 구성’(1966)과 관련된다. ‘상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양육자들이 지키는 양육 규범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아동의 독립 보행 역시 생물학적 능력 획득 외에 사회적 판단과 합의의 압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독립 보행 지연 현상은 옥외 보행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신구 단지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 신 단지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8살)이 되어서야 독립 보행을 시작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렇듯 양 단지 어린이의 독립보행 시기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홍보하는 건설 자본의 바람과는 달리, 개선된 신 단지의 보행환경도 취학 전 아동의 활동과 그 양육자의 돌봄 노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듯 아동의 독립보행을 결정하는 변인은 언뜻 환경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독립보행에는 환경적 변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단지 그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양 단지 모두에서 관찰되는 아동 독립보행 지연의 원인으로도 관련된다.

## 2. 아동 독립 보행 지연의 원인

### (1) 길의 의미 변화

#### 1) 자동차 통행 vs 놀이

오늘날 신구단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의 독립보행이 지연된 첫째 원인은 길의 의미 변화다. 오늘날 도심과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길은 자동차와 속도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어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행 환경이 오늘날 어린이의 독립 보행을 크게 방해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전체의 보행 환경 뿐만 아니라 단지 내 각 주거동의 세세한 차이 역시 양육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동차 통행은 아동의 독립 보행에 제 1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도로가 중심이 되는 단지 설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 단지는 구 단지에 비해 자동차의 위협이 적다. 이에 아이들은 야외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전거를 타도 차가 없으니까. 큰 애 자전거 타도 큰 걱정 없고, 좋아요. 그건 정말 되게 좋아요” (C엄마)

“여기는 사람은 많아요, 노는 애는 진짜 많아요.” (X엄마)

“애가 뛰어 놀아도. 막 저~기까지 뛰어다녀도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조그만 아파트는 뛰어봤자 요만큼인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저 끝까지 뛰어도 되고” (B엄마)

“애들이 엄청 뛰어 놀아요. 자전거 많이 타고. 잔디밭에 들어가도 되니까 거기서 막 뛰어 놀고... 좋더라구요.” (K엄마)

아이들의 야외 활동은 단순히 횟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다. 보행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기에 아이들의 활동 규모는 더욱 커지고 다양해진다. 보행 환경의 연결성이 중요한 자전거 타기가 대표적이다. 또 넓은 장소가 필요한 공놀이 역시 신 단지에서 더욱 많이 눈에 띈다. B엄마는 아이들이 뛰어도 ‘저 끝까지 뛰어도’ 된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활동과 놀이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 단지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등이 지상을 점하고 있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내놓기를 두려워한다.

“애(5세)가 또 놀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없어져, 그러면 어디 가 있지? 그러면 요기 차 사이에서 바퀴 만지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 튀어나오면 어떡하냐고. 거기다가 우리 주차장은, 우리가 두 번 봤어요. 그 차를... 뭐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 놔서, 뒤로 흘러가서 뒤 차 박는 걸 두 번이

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애 절대로 내 놓지 말라고, 나더러 안전 불감증이라고.” (S엄마)

구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옥외에 보호자 없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다수의 공간이 자동차 통행과 주차를 위해 쓰여지는 상황은 양육자로 하여금 옥외에서 어린 아동에 대해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S엄마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난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워킹맘인 엄마를 둔 S(5세)는 평일에는 밖에서 노는 일이 거의 없다. 집 근처에 사무실을 둔 엄마가 퇴근하는 6시 경까지는 유치원과 유치원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맡겨져 있고, 엄마가 오면 차를 타고 근처 대형 할인점에 가서 엄마와 저녁거리 등을 간단히 쇼핑한 후 집에 돌아와 자는 일과가 거의 일상이다. 이렇듯 오늘날 워킹맘의 자녀들은, 단지 낮 시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외에 다른 면에서도 성장 및 활동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바로 장시간 실내 생활이 그것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Child Friendly Cities)를 주창하는 연구자들은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만 하는 것만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최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부모들이 아동 보호를 일차적 목적으로 아동들을 특정 공간에 밀어 넣음으로써(Grill, 2008: 홍승애·이재연, 2011에서 재인용), 아동은 외부 환경과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고(Malone, 2009: 홍승애 외, 2011에서 재인용), 야외 활동 부족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불안 수준이 높아지며(Louv, 2006: 홍승애 외, 2011에서 재인용), 자유로운 일상 생활을 빼앗기는 대신 딱 짜인 실내 프로그램에 따른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Houlihan, 2005: 홍승애 외, 2011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발달에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아동 생활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움직이는 도시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에서 워킹맘의 자녀들은 가장 큰 희생양이 된다. 옥외 활동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외부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부족한 워킹맘의 아이들은 활동의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당하는 것이다.

S의 나이는 5세로, 아직은 어린 편이기에 S엄마의 아동의 옥외 활동과 관련한 걱정, 스트레스는 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성이 증가하고, 또래집단과의 집단 놀이나 상호 작용을 추구하는 7세 정도가 되면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과 그로부터 얻는 불안, 스트레스는 훨씬 증대된다. S엄마의 걱정이 아이가 주차장에서 자동차 바퀴를 만지는 정도라면, 활동성이 증가한 7살 아동 양육자들의 걱정은 아이들의 자전거 타기 등 동적인 활동이다.

“예전에는 (길을) 건네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서 오더라고요. 혼자 찾길 건너고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의 주고.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보낼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내보네요.” (J 엄마)

“...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겁나고. 말을 해도 안 들어. 어저께도 어떻게나 자전거를 타고 땡땡 돌아다니는지. 그것이 힘들어. 그렇다고 안 사줄 수도 없고.” (P 할머니)

“네 발 자전거는 괜찮아요, 속도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 두 발은 획~ 지나가버리잖아요, 찾길요.” (P엄마)

“차길...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자전거 타고 지나가지 말고, (자전거) 내려서 (차 오는지 안 오는지)보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자기는 잘 할 수 있대,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W엄마)

“예전에는(이사 오기 전 신 단지에서는) 내려오면 바로 그냥 블록이고 놀이터여서 그냥 태우면 되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들고 한참 가야 되고, 계단 올라가야 되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게 일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인데.” (B 엄마, 구단지로 이사 후)

1970년대에는 기차역 근처에 사는 어머니에게 아동의 철길 교통사고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서라도 적정 수의 아이를 낳을 것을 권고하는 가족계획 CF가 있기도 하였다.<sup>12</sup> 배은경(2012)은 이러한 가족계획 CF를 예로 들며, 당시 ‘낳는 어머니’에서 ‘기르는 어머니’로 어머니 상이 전환되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구 단지 양육자들의 일상은 이러한 가족 계획 CF를 매일, 그것도 실생활 가까이에서 보는 것과 같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차가 자동차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환경적 위험 요인이 철길 인근의 특정 주민들이 아닌 각 집마다 도로와 주차장을 면하고 있는 다수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실내 양육만으로 일관할 수 만도 없는 취학 전후 아동을 둔 경우, 옥외 활동과 관련한 부모들의 걱정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취학 전후 아동 양육자의 걱정과 우려는 단순한 심적 불안 정도가 아닌 경험적인 사실로도 입증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급증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도 하교 시간대인데,<sup>13</sup> 즉 이 연령까지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육자의 보호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거꾸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

---

<sup>12</sup> 빠~앙 소리를 내며 기차가 지나가는데, 한편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널던 어머니가 기차 소리를 듣고 불안한 눈빛으로 어디론가 뛰어간다. 계단 위에서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엄마, 기차가 지나가는 옆으로 아이는 안전하게 공을 들고 뛰어온다.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끌어 안는다. (이러한 장면 위로 다음 멘트가 흐른다)

내레이션 : 엄마의 소망은 하나. 아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뛰노는 아이 위에 머무는 엄마의 시선. 둘만으로도 엄마는 쉴 여유가 없습니다. -출처 : [www.ppfk.or.kr](http://www.ppfk.or.kr) (배은경, 2012 ; 211p)

<sup>13</sup> “ 초등학교 저학년·하교시간 교통사고 가장 많아”, 뉴스토마토, 2014.5.6

통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보호와 돌봄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케도 한다.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등이 도시의 주요 공간을 점하게 되면서, 이러한 환경적 위험 요인에 대처하려는 노력들은 모두 돌봄 노동의 부담이 된 것이다.

## 아동 활동을 변화시키는 보행 연결성

자동차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어린이 활동과 양육 노동의 주요 변수라는 것은 단지 간 비교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주거공간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구 단지에서도 양육자들은 차 길을 건너지 않고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보행 및 야외 놀이를 쉽게 허락한다.

P엄마는 P가 7살 들어 혼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하는데, 주거동 바로 앞 공사 중이던 놀이터가 1년만에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놀이터로 차 길을 건너지 않고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P엄마는 주말이면 아이가 혼자 놀이터를 오가는 것을 집에 앉아서 발코니로 내려다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전에는,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부부)가 잘 안 나가니까 (P도) 잘 안 나갔는데, 이제는 혼자 나가죠. 심심하면 밥 먹고 (놀이터에) 왔다갔다. 아파트 동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가능하죠. 처음에 내가 내보내기 시작한 것도 눈 앞에 보이니까. 저런 동 앞에 살기가 쉽지 않죠. 보통은 찻길, 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P엄마)

J엄마 역시 슈퍼마켓 심부름은 인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J 혼자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슈퍼마켓 갈 때도 인도로 가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차가 걱정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는 길을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J엄마)

이렇듯 구 단지에서도 아동의 활동에서 보행 연결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아동들은 독립적인 보행과 활동의 기회를 얻는다. 구 단지의 양육자들은 단지 전체의 낮은 보행 안전성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토하면서,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보행을 허락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P엄마는 놀이터가 바로 주거동 앞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를 행운으로 여겼고, J엄마 역시 보행 연결성이 확보되는 슈퍼마켓까지만 심부름을 허락한다. 한정된 기회 속에서도 양육자들은 스스로와 아이를 위해 아동의 독립 보행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W와 단지 내 공원을 자주 찾는 W엄마는 공원과 보행로로 바로 연결되는 주거동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도(이 단지에도) 공원이랑 바로 연결된 동이 있어요, 000동인가...?, ‘아, 저거 괜찮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는 차길 안 건너도 되요. XX네도 거기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XX도 유치원 그냥 (혼자) 다니잖아요, 차 안 다니니까. 제가 여기 공원에서 놀다가도 ‘아, 여기(동), 저기(동)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도 다 보여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찾길도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사 올 때) 그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살면서 ‘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W엄마)

아이가 훨씬 어렸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이제 아이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나니 주거지 선택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W엄마는 ‘애들 키우다 보니 찾길도 문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돌봄 노동의 영역이 확장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구 단지에 살면서, 주로 활동하는 공간만이라도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자기 집 앞 놀이터, 인도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만 놀 수 만은 없다. 임승빈(2007)의 놀이터 연구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평균 체류 시간은 20분이며, 어린이들은 다양한 장소(보도, 주차장, 잔디밭 등)를 옮겨 다니며 노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네, 시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 놀이터는 주로 5~8세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 이상 연령대의 아동들은 놀이터에 흥미가 없다고 한다. 이에 구 단지의 양육자들에게 찾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물론 이조차도 없는 경우보다는 낫지만 - 잠시의 통과공간, 혹은 잠깐 노는 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은 넓고 긴 동선을 필요로 하기에, 지상의 많은 공간을 차량이 점거하고 있는 구 단지에서 자전거 타기는 일차적으로 양육자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고, 어린이 본인들에게도 안심하고 즐기기 어려운 활동이다. 구 단지는 또한 보행로뿐만 아니라 공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공터가 필요한 공놀이가 어렵다. 지상공간 자체가 부족하니 놀이터나 공터의 면적도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어린이 놀이 공간의 세분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단지 어린이들의 생활은 상당히 실내화 되어 있으며, 게다가 실내 생활이 연장되어 놀이터에 나와서조차 딱지, 게임 등 상대적으로 동선 폭이 좁고, 비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5시쯤 되면 초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형들이 놀아줘요. 딱지도 숨겨서 숨바꼭질도 놀아주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W엄마)

“바닥이 딱지 치기 좋은 바닥이에요, 우레탄 바닥? (웃음)” (J엄마)

신 단지의 놀이터도 물론 ‘우레탄 바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는 신 단지 놀이터에서는 딱지 치기나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이는 관찰하기 힘들었으며, 신 단지에 거주하는 양육자들과의 면접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접하기 힘들었다. 주차장이 전면 지하화되어 지상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신 단지는 각 어린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터, 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넓은 공터가 많고, 보행공간이 넓고 동선 연결이 좋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려는 어린이들은 한정된 공간에 간헐 필요 없이 단지 전체를 돌며 탈 수 있다. 이에 자전거를 타려는 어린이, 공놀이를 하려는 어린이, 놀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어린이들이 서로 충돌할 일도 많지 않다. 그러나, 구 단지에서는 놀이터에서도 딱지 치기, 게임 등 비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다른 활동을 하는 어린이와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크다.

## 단지는 섬이 아니다.

그러나 신 단지 양육자들 역시 자동차에 대한 우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데,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단지 내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무서워서 애 혼자 못 내보내겠어요. 놀다가 (차도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도 저기서 사고 나서. 8차선(도로에서), 장난 아니게 크니까. 비둘기 잡는다고 쫓아가다가 가버릴까 봐 불안해서.”(X엄마)

“저는 길 건너는 데는 심부름을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안에 있는 삼촌 카페나, 거기 슈퍼 정도. 그 정도는 그냥 잠깐 갔다 와, 그거 되지만 길 건너서 가는 데는, 너 그냥 여기 앉전히 있어,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빨리 갔다 오죠.”(Z엄마)

아이들은 신 단지 안에서는 자동차로부터 안전하다. 이 신 단지는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도 마치 한 단지처럼 붙어 있어 통학시의 교통사고 염



려도 없다. 그러나 이 신 단지는 산본 신도시 한 가운데 마치 외딴 섬, 도시 속 ‘돌연변이’(주서령, 2004: 118)와 같이 존재하기에, 신 단지 양육자들 역시 자동차에 대한 우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2,000세대가 넘는 단지 가운데를 8차선 대로가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대개의 생활 반경은 대로 양쪽으로 나뉘어진다(대로 양쪽이 마치 별개의 생활권과 같이 초등학교도 따로 있다). 그러나, 7살 경을 넘어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등 아이들의 기동성이 좋아지는 경우, 아이들은 대로변 횡단보도로도 넘나든다. 이에 단지 내에만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은 교통사고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따로 아파트 단지 담장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 ‘단지의 폐쇄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경계부에서 주변 도시 공간과의 접촉과 소통을 회복하자는 의도이다(박인석, 2013 ; 315). 그러나 어린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영역성의 확보가 약하다고 느껴진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 단지의 경계부에서 8차선 대로로 차들이 질주하는 모습은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

안전 문제 이전에 자동차 교통이 공간 체험에 미치는 심리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의 빠는 시속 20km - 인간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이다 - 의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큰 물체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옆에 있으면 심리가 불안해진다고 한다(몽고메리, 2013: 271). 또한 이 신 단지 바로 앞의 재래시장은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는 공간인데, 재래시장에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들은 단지과 재래시장 사이의 차도를 넘어야 한다. 단지라는 섬 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자동차로부터의 불안을 양육자들이 모두 덜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가용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들은 놀이터 외의 아스팔트, 주차장 등을 놀이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통행차량과 주차차량이 길을 점거하자 오늘날의 구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너무도 적다.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내보내지 못한다. 이는 신 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섬이 아닌 이상, 아이들의 활동 반경은 단지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양육자들은 실내 사설 놀이터 등 보다 안전하고 흥미 있는 장소로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 놀이터에서 함께 놀 친구가 없게 되면, 아이들은 더욱 더 나오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자동차는 아이들의 독립 보행과 양육자의 돌봄 노동에 큰 변수이다.

옥외 환경에서 자동차가 가장 큰 변수인 양 단지 아이들은 놀이와 활동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양육자들의 불안 등 감정적 경험 역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의 보행에 1:1로 대동하며 이루어지는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외의 변수와도 관련된다. 다음의 내용들은 아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1차 변수로 자동차가 거론됨에도, 왜 자동차 통행 여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양 단지에서 아동의 독립 보행이 모두 대동소이하게 지연 현상을 보이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이 역시 보행환경의 문제에 속한다.

## 2) 근린주거환경

### 사회적 밀도와 공간

80년대 아파트단지 내 거주자들의 옥외공간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내 다수의 중정 공간은 가장 많이 비중 (30% 이상)이 ‘통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었으며,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심지어 주민 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행위조차 ‘서서’ 하는 경우가 많아 휴게공간의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시사된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존재하는 대부분의 녹지공간도 단순히 관상을 위한 공간으로, 거주민의 활동 등을 유발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녀 녹지공간의 재편 필요성이 요청되기도 한 것이다(임승빈, 2007).

또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공간적 밀도만 높을 뿐 사회적 밀도(접촉)

가 낮은 특성도 지니는데, 이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 준 사적(semi-private)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차별적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것보다, 스스로 타인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준 사적 공간이 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 의지가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 (앤드류 바움, 1973: 몽고메리, 2013에서 재인용). 짐멜(G. Simmel) 역시 대도시인들의 심성의 특징을 ‘둔감함’으로 정의하였는데, ‘현대의 삶에서 가장 심층적인 문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독립과 개성을 사회나 역사적 유산, 외적 문화 및 삶의 기술의 압도적 힘들로부터 지켜내려는 요구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G. Simmel, 1903). 즉 외부의 자극과 변화가 클수록 인간은 거꾸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둔감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으로, 전술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도 상통한다.

이는 홍두승, 이동원(1993)이 1990년대 초반 수행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바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친밀한 이웃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홍두승 등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환경이 오히려 자신의 지역 공동체를 정의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린관계에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하며, 과밀한 아파트 단지 건설이 대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를 주거지역에까지 경험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1993: 51).

이렇게 공간적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공간적 밀도가 낮은 미국의 교외단지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밀도가 동일하게 낮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단지의 양육자들은 아이들의 옥외 활동을 위해 내키지 않는 외출도 하게 된다. 보행공간, 녹지, 휴식공간은 물론 준 사적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의 외출은 양육자들에게는 양육 스트레스<sup>14</sup>가 유발되는 하나의 환경적 요인이 된다.

---

<sup>14</sup> 양육 스트레스란 구체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Abidin, 1992: 노신애 외, 2012에서 재인용). 기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모 개인적 특성 요인과 부부 관계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가정환경 특성 요인, 양육 대상인 자녀 특성 요인 등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환경, 특히 거주 환경 등 물리적 환

간혹 놀이터 등에 주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주부들이 ‘답소를 나누며 쉬고 있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구 단지의 옥외 공간을 양육자들이 휴식과 상호작용에 적합한 장소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양육자들에게 옥외공간은 엄연한 돌봄 노동의 공간으로, 이들 역시 아동들의 옥외 활동이라는 이유만 아니라면 굳이 삭막한 옥외공간에서 휴식이나 활동의 기회를 찾을 이유가 없다.

“별 일 없으면 그렇게 밖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하루 종일 손주 안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종일 드러누워 있어... 평상시 성향은 막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고...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편해. (손주만 아니면) 이렇게 매일 저녁에 나올 일 없죠, 전혀.” (P 할머니)

“(아이 때문이 아니면 밖에 잘 나올 것 같은가 물으니) 놀러 가는 게 아니면 이런 데는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죠... (집이 답답할 때 밖에 잘 나오는지 물으니)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한 번 나와 봤는데, 어우~ 무섭더라구요. (웃음).” (P엄마)

“(아랫집) 언니는 너무 힘들데요, 나가서 뭐하냐고... 거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하고... 근데 아줌마들끼리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들 싫다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자식들 땀에 하는거라... 또 (애를) 따라가기도 귀찮다고, 내가 마흔 넘어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W 엄마)

구 단지의 면접자들은 자신들은 이웃들과의 교제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사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집이 답

---

경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축 및 도시 계획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일반 성인 위주로 거주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이다 (고은정 외 2006 ; 박지혜, 2012 ; 김병석 외, 2013 등).

답해도 밖으로는 별로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집 밖에 나오는 일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일이다. 이는 아이만 아니라면 피하고 싶은 일이며,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푸념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다. 이는 실내 활동을 선호하고 이웃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면접자들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 단지에 거주하는 면접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이것을 단지 구 단지 면접자들의 개인적 변수로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 단지의 면접자들은 대체로 옥외 활동과 이웃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밤에도 날씨 따뜻할 때나 더울 때는 먹을 거 싸 갖고 나와서 엄마들이,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라고 하고, 우리는 저기 안내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X엄마)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덜 지루한지 물으니) 놀이터도 예쁘고, 우레탄 바닥도 마음에 들고, 차가 없는 것도 마음에 들고, 여기저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맘에 들고.” (Z엄마)

“(아이들을 혼자 놀도록 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물으니)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들어올 일이 없으면 굳이 안 들어오죠. 굳이 아이들을 혼자만 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전 아이랑 있는게 좋아요. 엄마들하고 같이 있는게 좋아요.(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냐 물으니) 아이들 가까이서 쉬면 되잖아요.(현재 주거 환경에서 아이 키우는 데 만족하는지 물으니) 네. 만족스러워요.(애를 따라 나가는 건 힘들지 않은지 물으니) 안 힘들어요 (웃음).” (C엄마)

“단지 내 쉴 만한 곳, 머물만한 곳... 그런 걸 많이 해봤죠. 애들 엄마도 그런 데 있고. 일반 아파트와는 조경 자체가 다르니까 좀 더 머물고 싶죠...지금 아파트는 조경이랄 건 별로 없고 그냥 놀이터 주위 벤치...

...(신 단지는) 커뮤니티센터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탁자 같은 거. 그런데서 모이기도 하죠.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애들은 밖에서 놀기도 하

고, 어른들은 맥주 한잔 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니까 덜 부담스럽고.

...단지 내를 한 바퀴를 쭉 돌고 싶죠. 반포 G 같은 데는 더 그래요. 휴양지에 온 느낌이에요. 반포 G 있잖아요, 그 앞에 L 프레스티지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가봤는데, 수영장도 이용했고... 정말 좋아요 (웃음). 오리도 있어요. 연못에 오리가 뚱뚱 떠다니고, 카페도 있어요...좋더라, 진짜 좋더라... 콘도에 온 느낌이었어요 (웃음). 산을, 언덕을 만들어놓고 (웃음) ” (B엄마)

C엄마에게 옥외 활동은 구 단지와 같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일 이 아니다. C엄마는 옥외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또 쉬고 싶으면 아이들 곁에서, 옥외 공간에서 쉬면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노동이 힘들지 않고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역시 구 단지와 비슷한 단지에서 거주하다가 신 단지로 이주한 Z엄마 역시, 신 단지의 환경에 만족한다. 신 단지의 옥외 환경은 성인 양육자들에게 단지 돌봄 노동 목적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외출과 이웃 교류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B엄마나 X엄마도 단지 내에서 다른 양육자들과 소통하는 행위를 조금 더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 단지에서 거주하다 구 단지로 이사를 온 B엄마는 경제적 여력만 된다면 당연히 신 단지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본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로 ‘반포G’, ‘L 프레스티지’를 거론하며 ‘휴양지’, ‘콘도’에 비유한다. ‘반포G’, ‘L 프레스티지’에 가 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B엄마에게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비되는 신 구 양 단지에서의 옥외 활동, 주민간 상호작용에 대한 성인 양육자의 선호도의 차이를 단순히 개인적 성향의 차이로만 돌리기는 부족하다. 보행로와 풍부한 녹지, 주거동 인근의 운동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특화된 신 아파트 단지는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행위에 양육자

자신의 기분전환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간은 양육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신 단지에서는 B엄마, X엄마의 말처럼, 소풍 온 듯 간단히 먹을 것을 싸 들고 나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음식을 나눈다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촉진되는 신 단지는 양육자들 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적절한 환경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한국형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정현목, 2012: 54)’ 내의 폐쇄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기원 자체가 커뮤니티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들에게만큼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조성, 촉진되는 폐쇄성, 그로 인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휴식과 공간

또한 신 단지에서는 평일 오후 아이에게 자전거를 태워주는 성인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Z 엄마는 본인의 남편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아이에게 자전거를 태워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많이 데리고 돌아다니고. (아빠가 주말에?) 평일 저녁에. 밥 먹고 산책 겸. 자전거 타고 아빠랑 인근을 한 바퀴 돌고 오죠. 밥 먹고 한 9시 정도. (저녁에 안 추울 때?) 그렇죠, 지금 계절에” (Z엄마)

구 단지에서도 가끔 일찍 퇴근한 남성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와 놀아주는 경우가 관찰되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애 보기’ 즉 아이를 위한 돌봄 노동일 뿐이지, 성인 본인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놀이터 자체가 어린이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이지 어른이 어떤 활동을 하기 적

합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린주거 영역에 휴식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이들과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가영(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가 생활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것이 특징이다. 일단 양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5 시간으로 OECD 평균 5시간보다 10%나 부족하며, OCED 국가 최하위권으로 일본(3.9 시간) 다음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더욱 눈 여겨 볼 것은 질적인 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TV시청 (46.6%)’, ‘인터넷 검색 (7.2%)’으로, 전체 여가 활동의 65.2%가 비활동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책은 3위를 차지하였는데, 6.2%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가영은 이러한 여가생활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근로, 학습, 통근 등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시간 변수 중심의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살펴볼 것은 공간 변수이다. 근린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인 산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간 변수로만 돌리기 어렵다. 즉 어린이에게만 놀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구 단지의 아이들이 좁은 놀이터에서 좁은 공간을 활용한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른도 근린에서 딱히 즐길만한 야외 활동이 없게 된다. 그러나, 신 단지와 같이 옥외활동을 장려하는 공간에서는 남성들도 퇴근 후 자신의 휴식 겸 아동의 놀이 겸, 함께 옥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옥외공간의 변화가 주 양육자 - 주로 여성이다 - 는 물론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까지 촉진하는 것이다.

## (2) 사회적 자본의 약화

### 1) 커뮤니티 : 사회적 자본 vs 위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 단지는 자동차의 위협이 적고, 주민의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생활환경으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양육자들의 우려가 덜



한 편이다. 그러나 신 단지에서도 취학 전후 아동의 옥외보행활동에는 어른이 동반하는 돌봄노동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자동차 등 물리적 위험 요인 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 때문이다. 이는 크게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 문제는 전체 사회 및 해당 근린주거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아동 상호간의 사회적 자본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불안은 전 사회의 것이다.**

신 단지와 같이 보행과 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양호하다고 양육자들이 안심하지는 않는다. 유괴 및 성범죄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어린이인 경우 양육자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로 아이에 대한 행동 통제가 더욱 커지는데, 이는 신구단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들의 독립 보행이 늦어지도록 만드는 공통 요인이다.

“일단 차가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누가 애를 데려갈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 댄에는 굉장히 용기를 내서 보낸 거예요... 산책로에는 가로등 밑에 ‘긴급’ 버튼이 있어요...이상의 아저씨를 만났다가, 누가 너를 갑자기 혼낸다거나, 누가 너한테 막 시키면 누르라고 가르쳤어요.” (K엄마)

“차가 무서운 건 해결이 되었는데 사람이 무서운 게 해결이 안되고 있죠... 둘째(4살, 여아)는 혼자 못 내보내죠, 절대. 여자애들은 특히. 성추행이 많대요, 놀이터에... 세상이 험하잖아요...” (B엄마)

“딸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S엄마)

신 단지의 X엄마의 주거동은 단지 내에서도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인적이 드문 편이다. 게다가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이라는 관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주민들이 지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외진 주거동 주변이 더욱 한적하고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아줌마, 이모 같이 가요’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요즘 세상에 뉴스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으스스하고 이러면...그런 거는 아직 혼자 보내기... 한 1,2학년까지는 (무서워해요).

아는 애도 아저씨랑 둘이 탔는데, 애가 되게 긴장하고 있었던 거야, 되게. 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만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 근데 그 아저씨가 ‘근데 너 왜 나 피해?’ 하더니, 한 동네 아저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무서우니까.” (X엄마)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개인화된 도시의 주거 지역에서 양육자들은 아이가 ‘이상한 사람’에 의한 유괴, 납치, 청소년 범죄, 특히 여아의 경우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자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실체가 분명한 교통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면이 많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 펴낸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2004~2008년간 우리나라의 매년 실종 아동 발생건수는 2004년 4,066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약 230% 이상 증가하였으나, 발견율은 99% 이상으로 실종 아동의 절대 다수는 발견되고 있다. 또한 면식범에 의한 범행인 경우가 약 60%(59.2%)이며, 그나마 이중 20~30%는 ‘예상 밖으로’ 친부모에 의한 ‘유괴’이다. 그리고, 성적목적의 유괴인 경우, 청소년 대상이 다수(64.2%)를 차지한다. 즉, 일반인의 생각과 같이 낯선 누군가를 막연히 두려워할 상황은 많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약 70%는 가족, 친지, 면식관계의 주변인에 의해 이루어

어지며, 범죄 장소도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이러한 아동 대상 범죄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아동 범죄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경계를 한다면 막연하게 낯선 이가 아닌 잘 아는 주변 인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육자들은 ‘낯선 이’에 대한 불안으로 아이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며, 이는 신구 아파트 단지 모두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위협의 양극화는 가능해도 불안의 양극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협은 ‘섬’과 같이, 마치 도심의 ‘돌연변이’와 같은 형태로, 자신이 사는 근린환경만을 일부 개선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모든 위협 요소를 통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바랄 수는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충실한 복지국가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위기를 관리하듯,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회 전체의 공간복지를 강화하지 못한 경우 보행권을 상품화한 공간을 구매하여 개별적으로 개인과 가족 차원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대상인 신구 아파트 단지의 예에서도 보듯, 자동차로부터의 위협은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의해 그 영향이 전 사회로 증폭되는 아동 대상 범죄 등의 ‘불안’은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불안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특정 근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 사회의 불안이 된다. 매스미디어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너무 크게 다루어, 양육자들 스스로 그러한 미디어의 과도한 영향을 감지할 정도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협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위협을 알 수 있는 언론매체들이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몰라서, 몰라서 위협을 못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언론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

되는 소식이 너무 많아지고 빨라지다 보니 엄마들이 더 불안해 하는 거지, 그게 저는 가장 불안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C엄마)

“그 때도(예전에도) 유괴 사건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떠들썩 하진 않았지, 왜 없어요, 있긴 있지. 그래도 (애들이 나간다 하면) 불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유난 떨지 않았어요.”(Y할머니)

오늘날 아동 대상 범죄로 언론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특히 도시의 가장 열악한 주거 지역인 다세대 주택가, 재개발 대상 지역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형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로도 간주되는 고급 신규 아파트 단지조차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상은 일면 역설적이다. 이는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불안만이 관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불안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 **‘외부효과’가 없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한 양육자들은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큰 ‘손 위 아이들’마저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기도 한다. B엄마는 9살(3학년) 아이가 전학한지 얼마 안되어,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빨리 사귄 수 있도록 방과 후 운동장에서 놀고 오도록 하는데, 어른들보다 ‘형들’이 더 걱정된다고 한다.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도 거의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애들’을 만날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유괴, 성범죄 등을 경계하는 경우 외에, ‘큰 애들이 괴롭힐까 걱정된다’고 답하는 면접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차라리 어른은 괜찮아요, 학교 안에 어른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 보안관 아저씨가 있고. 근데 어른은 캐치가 되지만, 6학년 형들이 노는 건 사실 캐치가 안되잖아요. 노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그런 것도 불안하고.

” (B엄마)

“(왜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못 내보낼까 물으니) 차가 위험해서.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큰 애들이 괴롭혀서?” (P엄마)

“거친 애들이 많거나 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용한 곳을 찾아 다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맘 놓고 나와서 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Z엄마)

“그런데 놀이터에 또 누가 있느냐... 그것도 좀... 비비탄 같은 거 막 쏘는 애들 있잖아요. 되게 과격하게 노는 그런 애들 있으면, 나도 그 놀이터에서 애들 빼거든. 그렇다고 남의 애한테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없고.” (H엄마)

그러나 모순되는 사실은, 정작 양육자들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동네 손윗 아이들은 그들의 ‘보호자’, ‘친구’ 였다는 사실이다. 양육자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놀고 학교를 다녔던 때로 기억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오빠 손 잡고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고향이 구례예요. 완전 논밭. 그래서 학교 가려면 그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걸어갔어요... 근데 논밭을 동네 언니 오빠다 같이 가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생각 없이 줄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W엄마)

“그냥 동네 얕은 언덕에서, 그냥 내 또래들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동네 오빠들, 동생들 다 같이 올라가서 놀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S엄마)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는 동네 언니, 오빠를 친구,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어째서 지금은 동네 손윗 아이들을 자기 자식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지 이유를 묻자 S엄마는 ‘내가 아는 애가 아니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내가 아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착한 애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웃음).  
까볼지 마라, 저리 가라, 비켜! 이러기만 하지, 같이 놀자, 놀아 놀아~ 이런 애  
는 많이 못본 것 같아 (웃음) ” (S엄마)

자신의 자녀들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은 어린이들마저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사실 이러한 몇 살 많은 어린이들이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크게 위협할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 S엄마의 말처럼 그 어린이들조차 ‘낯선 이’ 로 간주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태훈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조건을 연구하며, 아파트 거주자들이 모르는 이웃 전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옆집 사람을 잠재적 불편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즉 이웃 주민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음이나 물리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무언가 즉, ‘요소’ 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김태훈, 2013: 90). 이러한 성인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가 아동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동네 아이 역시 ‘내가 모르는 애’ 이고, 제 자식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어린이 역시 ‘내 자식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어떤 요소로 간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육자들은 자동차가 없다 해도 아이들을 쉽게 내보낼 수 없다.

이에 오늘날 놀이터에는 각자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따라 나온 양육자들로 빼곡하다. 아이를 따라 다니기 힘들어 일부러 기동성이 높은 두발 자전거는 사주지 않는다는 양육자도 있을 정도다. 양육자가 보호, 감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자신의 아이의 안전을 1:1 돌봄 노동을 통해 지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 은 전형적인 사회적 자본의 문제다. 그리고 이는 집단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생산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이를 매개로 한 젊은 부모들의 커뮤니티도 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퍼트넘의 개념을 빌자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포괄적 호혜성’ 보다 1:1 교환의 성격을 띄는 ‘한정적 호혜성’에 가깝다. 포괄적 호혜성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상호작용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그 규범이 싹트는 것인데(2000: 22), 오늘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젊은 양육자들이 맺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에 가까운 것이다.

“언젠가는 (아는)언니한테, 내가 (그 집 애랑 같이)애들을 보겠다, 언니는 집에서 쉬어라. W는 친구가 필요하고, (아는)언니는 나가기 싫으니 내가 보겠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아요...그 때(예전에) OO엄마랑 좀 놀았는데. OO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OO 엄마는 이제 나오시지 않으세요” (W엄마)

“(밖에 나가서 남의 아이들을 봐 준 적이 있는지 묻자) 예, 그럼요. 부탁하면 보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또 밖에 나갈 때 간식 같은 것도 내 애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애도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애들 거 챙겨서 가면 애들은 더 스스럼 없으니까 뜯어서 (함께) 먹기도 하고.” (C엄마)

OO엄마처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게 된 양육자들은 더 이상 놀이터에 나오지 않는다. 놀이터에 나와 이웃 양육자와 네트워크를 맺으려 한 것은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아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이상 네트워크를 더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C엄마는 외출 시 간식도 남의 아이 것까지 챙겨간다고 한다. 이유는 내 아이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주고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전제하지 않는 포괄적 호혜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1980년대에 중산층 아파트 단지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던 Y할머니는 당시 아파트 경비에게도 수시로 음식을 나누어주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

렇게 했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Y할머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한다.

“그 때(1980년대)는 아파트 1층에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집에서 하다못해 김치전이라도 하면 경비 아저씨에게 갖다 줬어요. 다른 집들도 그랬어요. (이유를 묻자) 아 뭐 맨날 드나드니까.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드나들 적 마다 아저씨랑 인사하고 그러잖아. 여기(산본) 이사 와서도 경비 아저씨한테 갖다 줬어. 경비 아저씨 없어진 지 얼마 안되었지, 여기 (1층 현관에) 자동문 한지 얼마 되나.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난 줬어.”

“(과거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를 드린 이유가 애들 잘 봐달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묻자) 예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되니, 또 심심할 거 아냐. 그러니까 부침개 하면 좀 갖다 주고, 애들보고 그러라고 했지 뭐. ” (Y 할머니)

‘맨날 드나드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인사하니까’, ‘나보다 못해서’, ‘심심할 것 같아서’ 등 Y할머니의 답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우리 동네 식구니까’ 라는 커뮤니티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주고받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포괄적 호혜성’인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자들이 C엄마와 같이 ‘내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별 생각 없이’ 경비 아저씨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Y할머니와 같은 무의식적 행위가 늘어날 때 우리는 ‘포괄적 호혜성’이 증대된 사회에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로 전업주부 간에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워킹맘과 그 자녀들에 대한 배제의 성격도 보여준다. 이는 퍼트넘의 정의를 따른다면, 단순히 포괄적 호혜성이 적은 것을 넘어서, 관용성이 낮고 내(內)집단과 외(外)집단을 뚜렷이 구분하는 ‘분과주의적 공동체’ (2000: 589)의 성격도 보이는 것이다.



“여기는(이 아파트 단지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덜해요, 별로 없어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 그러다 보니 자기 애를 케어(Care)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고, 항상 주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뭐가 문제되면 서로 봐주기도 하고. 그런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X엄마)

“맞벌이 하는 부부의, 편부모의, 돈 없는 집 애들이 오히려 그런 거(학교폭력) 심하다, 학교가 그런 애들이 많은 학교가.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자기는 그런 집에서 다니는 애들이랑 친구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 좀 생각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사람끼리’ 그랬는데, 내가 자꾸 S가 크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구요.” (S엄마)

“자꾸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 회사 다니는 엄마들 애들이랑은 안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H엄마)

사회적 자본은 물론 상호 의무와 신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계가 형편 없을지라도 연계가 잘된 공동체 속에 사는 경우는 그 사회가 누리는 풍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도 존재한다고 퍼트넘은 말하는데(2000: 19), OECD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우리 사회에서 워킹맘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매우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외부효과’는 이들의 지역사회에 없다. 이는 해당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사적으로는 작동해도 집단적, 공적으로까지 작동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도리어 워킹맘의 아이들은 취학 후에는 ‘케어(Care)가 안 되는 아이들’, ‘거친 아이들’, ‘우리 애랑은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아이들’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다.

전업주부들이 ‘케어(Care)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 지칭한 아이들은 학술적으로는 ‘자기 보호(self-care)’ 아동이라는 용어로 서술된다. 즉 만 5~14세 연령대의 맞벌이 부부 자녀로 방과 후 ‘성인의 보호 결여’ 상태로 남겨지는 아동들이다. 자기 스스로 집 현관문을 열고 귀가한다는 뜻의 ‘열쇠 아동(latch key child)’로도 불리며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연구되기도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지속적 자기보호가 자기학

습 통제능력을 감소시켜 ‘교육적 기회비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준호, 박현정 : 2012). 이는 위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을 통해서도 증언되는 바로, 교육학적으로는 ‘교육적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성격 외에, 사회학적으로는 ‘분과주의적 공동체’ 속에서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포괄적 호혜성이 낮은 공동체는 양육자들로 하여금 1:1 돌봄 노동을 지속하도록 하며, 이는 자녀들의 독립 보행을 제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적은 수의 성인 보호자들의 감시 하에 다수 아이들이 독립 보행과 자유로운 활동을 하려면 ‘외부 효과’가 필요한데, 본 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양육자들이 각자의 아이를 관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는 신 구 단지의 차이가 없었다. 각 단지의 물리적인 옥외 환경이 사회적 자본의 형태까지 변화시키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 2) 아동 커뮤니티 : 다산 vs 소산

5세 이하 유아의 경우, 놀이터에서 양육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가지고도 잘 놀지만, 사회성이 발달하며 또래 집단 활동이 활발해지는 학령전후기의 아동들은 또래집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양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쉽게 외부 공간을 보행하며 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옥외의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구 단지일수록 심하다.

“(엄마들이) 다들 (애를) 끼고 있어요. 놀이터에 안 나온다는 거... 밖에 나가면, 친구 없으면 불러달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7살 되던 해부터는 친구 불러달라고, 자기가 아는 친구를. 그게 힘들어요.”(W 엄마)

“나와 있는 애가 없어요. 나와 있지를 앓아...” (H엄마)

보통 ‘돌봄’과 관련해 사회적 자본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로 돌봄 노동을 베푸는 어른들, 양육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형제, 자매, 친구 등 또래집단 또한 아동에게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양육자는 함께 나올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큰 아이를 의지 삼아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한다.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남자애를 데리고 나오거나, 형제끼리 나오는 경우도 한 두 번 봤어요” (J 엄마)

“(Z가 5살인데 누나에게 의지해서 외출해본 적이 있는지 물으니) 아, 그럼요. 누나랑 같이 가서 ‘삼촌 가게 가서 커피 좀 받아와’ 그러면, Z가 ‘저도 갈래요’ 그러면 ‘누나랑 같이 잘 갔다와’...” (Z엄마)

신 단지의 Z엄마는 9살, 8살 딸 둘도 보호자 대동 없이 잘 내보내지 않는다. 큰 딸도 초등학교 1학년인 8살이 되어서야, 등교시 SMS 문자 안심 서비스의 힘을 빌어 보냈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처럼 독립적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5살 막내는 누나를 보호자로 대동하고 엄마 없이 외출을 했다고 한다.

“(암튼 Z는 다섯 살인데 누나 덕분에 어른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물으니) 그렇죠! 개가 제일 빠른거죠, 셋째라서”(Z엄마)

이와 같이 어린이는 어린이들 서로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준다. 동시에 이들은 성인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주어 성인 양육자의 돌봄 노동을 돕는 기능도 한다. 과거 대 여섯 명의 아이들을 출산하던 시절에 흔히 하던 ‘애가애를 키우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에 이미 1.60으로 2명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다시 1.19명으로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여전히 2명 미만으로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소산(小産) 경향으로 인해 아동이 성인 보호자 없이 옥외에 나오는 일은 쉽지 않다. 심지어 혼자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기도 한다.

“주변에 7살짜리가 혼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말한 남매가 나오는 건 있어도.” (W 엄마)

“놀이터는 혼자 가라고는 안 하는데. 만약 또래 친구가 같이 간다 하면 난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우리 애 혼자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니까 놀이터 가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나쁜 형들이 있을 수도 있고....” (H 엄마)

“요즘은 애들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것도 무서워해서, 애들이 학교 갈 때도 무섭다고 해서, 갈 줄은 알지만 무섭다고 해서 데려다 주고 그런 게 있죠.” (X엄마)

과거라고 환경이 모두 안전하고, 아이들이 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들은 형제자매와 동네 언니, 오빠에 의지해 학교에 가고 놀았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없거나 적어지고 동네 오빠 언니들과 어울리는 일마저 어려워진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같이 또래집단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 애들이 처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애들이랑 같이 가고 그랬지. 거기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었어요. 어른 걸음으로도 한 20분 거리?... (아파트 단지 이사 가서도) 우리 딸이 꼭 막내 데리고 학교 가고. 막내는 꼭 누나를 의지해서

학교 가고..." (Y 할머니)

"언니랑 나랑, 언니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혼자 노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네다섯 씩 놀았어요." (P엄마)

"여섯 살 때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등하교를 혼자서(어른 없이) 했다는 거. 왜냐면 저도 혼자가 아니라 언니가 있다 보니까" (C엄마)

주거지 인근에 친인척이 없는 W엄마는 가까이 사는 자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본인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교류 및 왕래가 쉬운 친척 아이들이라도 자녀의 또래집단,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 보다 수월한 육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인 것이다.

"(밖에) 안 나오는 분들은 자매 분들이 많아요. 자매 분들이 집에서 같이 놀아요...그런 분들은 집 안에서 해결이 되죠....그래서 내가 부럽다고 했어... '애를 몽땅 낳아서 집에서 그냥 왁자지껄 키워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힘든거야.... 제 친구가 4자매인데, 연년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결국에 자식 낳고 나니 동생을 찾더라구요... 네 자매가 같은 동네(전라남도 순천)에 살아요. 아파트인데, 한 단지에서 모이면 되는 거니까. (다른) 친구도 그닥 필요 없어요. 개네들끼리 놀면 되니까."(W엄마)

오치아이 에미코는 일본의 근대 가족을 분석하며, 1960년대 일본 도시가족 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친족 네트워크의 비중이 큰 것, 특히 자녀의 영유아기에 친족 네트워크에의 의존 정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흔히 생각하듯 근대의 핵가족이 도시에서 고립되어, 전업주부만의 힘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는 일본도 인구학적 변화로 형제, 자매의 역할이 감소하며 친족 네트워크는 부모로 극히 제한되게 된다. 오늘날 말하는 이른바 ‘황혼육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대신 대도시 지역에서는 영유아 주부들의 이웃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는데, 고립된 핵가족일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활발하며, 이웃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고 한다(오치아이 에미코, 2000).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5년 4.28명, 1985년 2.23명, 1995년 1.63명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통계청). 가장 왕성한 출산을 할 연령대인 20~30대의 형제자매수가 198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며, 이에 W 엄마의 바램처럼 4자매가 모여 아이를 키우는 경우란 이제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적은 40대 이상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일본처럼 ‘이웃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 연령  | 출생 연도 | 합계 출산율 |
|-----|-------|--------|
| 40세 | 1975년 | 4.28명  |
| 30세 | 1985년 | 2.23명  |
| 20세 | 1995년 | 1.63명  |

<표 3> 출산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2014년 기준)

자료 :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 인구·가구)

문제는 현재 주거 환경, 근린생활환경이 양육자들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촉구하는데 적절한가라는 것이다. 이는 크게는 주택 형식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등)의 문제이다. 외동아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P엄마는 그런 점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거양식에 높은 점수를 주기까지 한다.

“(현재 주거 환경이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묻자) 또래가 많은 거는 장점이 거 같아요. 나가서 놀 때 한 명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없으면?) 자기

가 들어오죠, P도 혼자 노는 거는 (안 좋아해요)” (P엄마)

그러나, 아무리 또래 친구가 많아도 주택을 둘러싼 근린 환경이 주민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가가 또 다른 변수이다. 이에 이러한 이웃 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보행 환경 등 환경적 요인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 그리고 사회 전체, 지역사회, 아동 커뮤니티 등 다양한 층위에서 약화된 사회적 자본은 보행환경과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아동의 독립 보행을 지연시켰다. 구 단지에서 대표적으로 관찰되듯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간과한 채 오직 ‘통행’ 목적으로 설계한 공간은 물리적으로 아동과 성인의 옥외 보행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 단지는 구 단지보다 차별화된 공간이라 말하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가 섬이 될 수는 없기에 양육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덜어지기는 어려워 아동의 옥외 보행을 위한 1:1 돌봄 노동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다만 그러한 돌봄 노동에서의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덜어지는 현상은 관찰되었을 뿐이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 역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고급 아파트 단지인 신 단지는 전체 사회의 양극화 및 사회적 자본 약화, 그에 따른 범죄 불안의 영향을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주부들간의 네트워크 역시 한정적 호혜성의 성격만을 띠는 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도 관찰되었다.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아동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마저 약화된 상황은 신 단지에서도 아동의 독립 보행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웃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근린주거 환경에서의 옥외 보행 환경의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신 단지의 개선된 물리적 보행환경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과 이에 따른 양육자의 불안 등은 다소 덜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돌봄 노동의 형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자본의 문제는 1:1로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돌봄 노동의 형태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아동 독립 보행의 지연 결과, 아동들의 생활, 사회적 네트워킹 방식

은 변화하였고, 이에 종속적으로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형태 역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장에서는 친구 단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돌봄 노동의 전략과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악화된 보행환경이 어떤 새로운 돌봄 노동 전략을 창출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는 현재 감지 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의 환경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육자 세대가 겪은 성장 환경이 한 세대의 시간을 건너 현재 아동의 독립보행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제 4장. 아동 보행의 돌봄 노동화

### 1. 1:1 돌봄 노동의 가중

아동에게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이들의 발달 과업인 ‘사회화’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을 사회 속의 인간으로 성장시킬 기제가 필요하다. 아동 보호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자의 1:1 관리형 돌봄 노동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화’라는 발달 과업의 수행은 다른 문제이다. 이는 양육자의 1:1 돌봄 노동의 범위를 넘어선다. 아동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을 ‘사회화’할 인간 집단, 즉 ‘사회’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집단이나 사회적 맥락을 ‘사회화의 대행자들(agency of socializ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모든 문화에서 가족은 유아기 어린이의 주요한 사회화 대행자이지만, 이후 성장과 함께 인간은 많은 다른 사회화의 대행자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A. Giddens, 1989: 92)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또래집단(peer group)이다. ‘또래집단’이란 놀이친구, 비슷한 연령층의 집단을 말한다. 사회화는 가족에서 시작되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또래나 또래집단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살다가, 같은 연령층의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때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커진다(고영복, 2000) 특히 오늘날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볼 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탁아소에 있을 것이므로, 예전보다 오늘날에는 또래 관계가 훨씬 중요해졌다(A. Giddens, 1989: 94).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독립 보행 지연의 결과, 종래와 같이 쉽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은 어려워졌다. 저출산으로 형제, 자매가 줄어들었다면, 위험한 외부 환경과 안전하게 놀 장소의 부족은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친구 네트워크 형성을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가 겪는 어려움은 양육자의 돌봄 노동이 된다. 근린주거의 커뮤니

타가 붕괴된 ‘사회 없는 사회’에서도 어린이의 발달 과업은 수행되어야 하기에, 양육자들은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만들기’를 또 다른 돌봄 노동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는 양육자 별로 다른 전략과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양육자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는 개별 양육자들의 성장 경험에 따른 환경 인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육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근린주거환경이 이들이 자신들의 후손을 키우는 현재의 근린주거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커뮤니티 창출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다.

## 2. 사회적 자본 획득 전략

### (1) 참여적 전략 : 엄마가 만드는 사회적 자본

####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노력

30대 중반의 W 엄마는 결혼과 동시에 아무 연고가 없던 현재 동네(구단지)에 이사 와서 살고 있다. 그녀는 친정 부모나 시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친척도 없이 그야말로 전업주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전형적인 도시의 ‘핵가족’ 모델에 부합한다. W엄마는 면접자들 중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양육을 고집하는 이였는데, 이는 자녀들을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키우려 노력함을 말한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란 아이들이 골목에서 - 농촌이라면 논과 들판에서 - 크던 시절이다. 그 시절은 어린이들이 골목길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함께 뛰어 놀며,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만들고 사회화 과업을 수행하던 때이다.

그러나 양육 환경은 변화하였다. 현재 그녀가 아이를 키우는 구 아파트 단지는 ‘완전 논밭’이었던 그녀의 고향과 다르다. 변화된 환경에서 변하기 이전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니 자연히 어려움이 많다. 면접자 중 근린주거환경과의 갈등 정도가 가장 심한 이는 W엄마였다.

“세상이 좋아졌는데, 엄마 힘든 건 안 좋아졌어 (웃음). 여자가 결혼함과 동시에 진정한 여자가 된다는데 희생, 희생, 희생... (웃음)...전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스트레스고... 전 놀이터에 혼자 내보내기도 해요. 큰 애를 전에는 쫓 따라다니다가 6살 때인가 처음 혼자 내보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엄마가. 혼자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몇 번 애를 잃어버려서 경비 할아버지가 찾아주고.”  
(W엄마)

어린 아이가 혼자 옥외 공간을 배회하면, 부모 이전에 타인들이 걱정하는 시대이다. 왜 남들의 걱정을 사면서도 6살 된 아이를 혼자 내보냈느냐고 묻자, W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과보호’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답한다. 자신도 어렸을 때는 그 나이 때 돌아다녔다면서.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나이에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애를) 끼고 있는 거 아닌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다른 엄마들이 하는 걸 보면,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걱정을 사서 할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개(애)도 자신감이 있어요, 애도. ‘와, 잘 했다’고 칭찬해주면 뭐...”(W엄마)

앞서 기술했다시피 W엄마는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 이미 다섯 살 W를 집 앞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하여 혼자 오가게 하였다. 손이 많이 가는 영아를 돌봐야 하는 W엄마의 상황과 아이를 독립적인 성향으로 키우겠다는 W엄마의 양육관이 W를 일찍부터 독립 보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W엄마는 곧 자신의 그러한 자녀 양육 방식이 요즘 시대에는 ‘일반적’ 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갈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시대의 양육 규범과 타협하기로 한다. 타인들의 규범, 즉 근대적 양육 규범인 관리형 양육 규범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했던 것들이.. 남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애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왜 안 데리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니깐. 옆집 할아버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데려다 줘도 되고’ 그런 이야기하면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가야지, 세상이 무서운데’ 그러시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도랑에 몇 번 좀 빠지고. 찻길도 위험했어요. 그 때는 길이 많지 않아서 덤프 트럭 같은 게 많이 다녔거든요, 자갈밭이어서 돌 튀겨서 돌도 많이 맞고 그랬던 것도 같은데...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내 자식이니까 보긴 봐야겠다 싶어서 나가긴 나가는데, 애가 (혼자) 나가서 한 시간쯤 놀면 또 (내가) 나가서 한 삼십 분쯤 더 놀다가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은.”(W엄마)

그러나 W가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보이자, W엄마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아이를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려는 양육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린 둘째 아이가 있는데 W를 따라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에 그녀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은 실내에서 갇난아기인 둘째 양육에 힘 쓸 수 있고, 첫째는 첫째대로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그녀가 가장 먼저 나선 일은 사회적 자본 강화 노력이다. 근린 주거에서의 사회적 자본 강화가 그녀의 돌봄 노동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애가 생기면 많이 바뀌어요, 모든 게. 생각 자체가 바뀌고. 우선 첫째는 옆집부터 다 인사를 하게 되요. ‘인사해라’ 다 인사 시키고. (인사를 시키는 이유를 묻자) 왜 인사를 시키냐고요? (웃음)그냥 뭐... 계속 볼 거잖아요, 옆집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옆집 아주머니, 아랫집 언니, 누나...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떨어져 있으니까, 언니 오빠도. 다 그렇게 인사시키고. 애를 알아야(알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집에 누구 애기다 정도는 알아야겠다... 안전과도 관계되죠, 혹시나 내가 (애를) 잃어버렸

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 여자 생똥맞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도는 아니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인사는 시키죠. 그럼 ‘어, 저 집 애기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건 좋더라고요. 애 낳았을 때와 안 낳았을 때. 안전과 인사성과.. 두루두루 (웃음).” (W엄마)

인근에 돌봄 노동을 지원할 여타의 가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W엄마는 옆집 할아버지, 아주머니 등 이웃 주민을 동원했다. W엄마의 말마따나, 친 할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고’,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즉 친족 네트워크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이웃 네트워크라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육자의 ‘직감’으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안전의 문제라 단언한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적어도 남에게 물어라도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이라는 또 다른 사회화 과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려면 인사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인사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인사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안전과 교육 문제를 ‘두루두루’ 해결하는 방법이 이웃 네트워크 강화라고 말한다. 다년간의 돌봄 노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불안해하지 않기로 한다. 앞서 확인했다시피 자동차, 아동범죄 등으로 양육자들의 불안 수준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W엄마는 불안해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는 그녀가 가진 ‘보편적 타인에 대한 신뢰’ 성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집 근처는 물론 여타의 장소에서도 아이를 몇 번씩 잃어버려 보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애를 공원에서 두 번, 인천대공원에서 한 번, 그리고 어디(정확히 기억 못함)에서 한 번. 이마트에서 한 번 잊어먹고, 여기 동네에서 두 번... 몇 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은, 제일 오래는... 한 시간 가량인 것 같아요, 인천 대공원에서 1시간 가량 잃어버려 본 거. 나머지는 한 30~40분. 물놀이 공원에서

도 잃어보고. 그 때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오니까 (전화번호를 새긴)목걸이를 해서... 다들 전화를 해주시더라구요.

...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때껏 애를 잃어버리면서도 ‘아, 사람이 좋구나, 다 찾아주는구나,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괜찮은, 다 가족단위니까, 다 자기 자식 같아서, 다들 전화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인천대공원에서 그랬고, 물놀이장에서도 다들 보면, 다른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해 주셔서 전화해주셨어요.”(W엄마)

반복된 성공사례는 그녀의 믿음을 강화시켜주었다. 아이를 몇 번씩 잃어버리고도 찾은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게 하였다. 한편으로 몇 번씩이나 아이를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은 양육자를 위험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W엄마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점이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여기 공원에 이상한 사람 나타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깊이는 안 물어봤어요, 알아봤자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러한 양육 태도는 여타 부모들과 매우 다르다.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거듭하는 것이 여타 양육자들의 일반적 태도라면, W엄마는 ‘알아봤자 좋은 일이 아니다’ 라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과도한 정보는 차단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W엄마의 성장 환경이 W엄마의 환경 인지에 미친 영향의 결과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 성장환경에 따른 커뮤니티 지향성

본 연구의 12명의 면접자는 현재의 보행환경과 관계없이 각자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따라 근린주거 공동체 내에서의 타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들 중 근린주거 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회복 의지 혹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를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 이들은 10대 시절까지 농촌 생활 혹은 시골 소도시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 단지의 W엄마와 신 단지의 K엄마다.

“고향이 구례예요. 완전 논밭. 그래서 학교 가려면 그 어렸을 때 완전 많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시골(전라도 구례)에서 살다가, 직장 다니려고 수원 이모 댁으로 올라와 생활했었고요... W는 동생이 나오기 전부터 밖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집에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밖에서 되게 많이 놀았어요.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내가 왜 나갔을까? 그냥 본능적이었나? 그냥 데리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놀이터에서 살고... 무섭죠. 사회가 무섭긴 하죠. 근데, ‘그 정도 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해? (W엄마)

결혼 전까지 농촌 생활을 경험한 W엄마는 어린 W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기도 전부터 ‘아파트에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유전적 요인인지 사회화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자주 외출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W엄마는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는 남들만큼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 이상의 정보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면접 내용에서도 보이듯 W엄마는 근린주거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데, 이를 단지 자녀를 위한 행위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녀 스스로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지향성을 키우지 못했다면, 성인

이 되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행위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에 살펴 볼, 똑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다른 대처 전략을 보이는 여타의 양육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유사하게 10대 중반까지 농촌 소도시(전라북도 정읍) 생활을 경험한 K엄마는 워킹맘으로 현재 근린주거환경에서 보내는 생활 시간이 많지 않기에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적다. 그러나 그녀는 타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공동체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낸다.

우선 그녀는 도시,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에 불만이 많다. 보행환경이 강화된 신 단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주거환경과 비교해 현재 옥외환경을 평가절하한다.

“어렸을 때 한옥에 살았어요... 집보다 마당이 훨씬 큰 그런 집... 그래서인지, 지금 아파트 살면서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녹지 공간, 마당에 대한...

저는 어려서부터 주택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파트는) 너무 획일화되고 동선이 너무 뻑하고... 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똑 같은 길로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렇게 갔다가, 하루는 또 저렇게 갔다가...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다닐까, 재미있게 다닐까.. 심지어 산을 넘어 집에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너무 그런 재미도 없고 단조롭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도 동선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바로 오느냐, 돌아서 오느냐 그 정도 차이?..”(K엄마)

집보다 마당이 컸던 지방 소도시 주택에 살며, 학교 갈 때마다 다양한 길을 이용하고, 심지어 산을 넘어 통학할 수 있었던 곳에서 자란 그녀는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것을 통한 관계 맺기를 좋아한다.



“저는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신 단지)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와서 굉장히 상처 받은 것 중 하나가,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 이야기를 끈이끈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얼마 안 돼서 알았거든요 (웃음)...

저는 지금도 헛갈려요, 어떤 엄마가 저보고, ‘우리 언제 차 한번 해요, 아유 저번에 차를 못했어요(못 마셨어요) 아쉬워라’(하면) ‘그러게 아쉬워요 깔깔깔’ 하는데,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거 고등학교 때 다 졸업해서 아는데도 그런 데도 가슴이 뛰어요. ‘아, 진짜 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지금도 그래요.” (K엄마)

10대부터 서울에서 생활한 그녀가 ‘서울 와서 상처 받은 것’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관계 맺기다. 그녀에게 ‘서울’이 상징하는 대도시라는 곳은, 실제 깊은 관계 맺기는 꺼려하면서도 겉으로는 관계 지향성을 남발하는 곳이다. 그녀는 ‘서울 사람들’의 가식적인 관계 지향성에 이들의 잦은 이사와 그로 인한 커뮤니티의 파괴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반대하고 ‘도심 재생’을 통해 커뮤니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다. K엄마는 도심재생 등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은 전문하지만, 자신의 삶에서의 관찰과 판단을 통해 그 핵심을 깨달은 듯 했다. 마치 W엄마가 이웃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생활을 통해 깨우친 것과 같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에서는 원주민과 입주민의 관계가 달라요... 아파트가 생겼다고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짓고 다시 들어온... (예전에 살던) G 아파트의 경우는 원주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 간) 제가 굉장히 타겟이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2006년에 일본 발령 나서 나가고, 제가 혼자 사는데, 우리 시동생이 유학 간다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게 제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정도로 이웃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 L 아파트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커뮤니티 센터나 산책로에서 많이 우연히 마주치고 하는 것 같지 않는데... L 아파트는 2012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예요. 신도시 자체의 정서가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때(G 아파트에 살 때) 사람들은 이사 왔다고 인사 다니면 ‘아이구~’ 하면서 알게 되고 했는데, 여기는 인사를 와도 ‘그래? 알았어’ 이런 분위기?” (K엄마)

구형 모델인 G아파트는 옥외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생기기 이전 단독주택단지에서 형성된 오랜 커뮤니티가 기반이 된 곳이었기에, 그녀는 그곳에서도 현재와 똑같은 워킹맘 생활을 했지만 이웃 주민을 많이 사귄 수 있었으며 아이도 몇 번 맡겨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단지인 현재 L아파트는 옥외 환경은 매우 좋지만 새로 형성된 지 얼마 안되어 커뮤니티성이 낮은 곳이다. 또 커뮤니티가 형성될 시간도 적었지만, 커뮤니티 형성의 의지나 타인에 대한 호감도도 낮다.

현재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옥외 공간의 차이에 따른 근린주거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자본은 그러한 옥외공간의 차별화를 소구점으로 아파트 신규 소비를 권장한다. 그러나 K엄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의 커뮤니티성 증대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옥외 보행환경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원주민을 내쫓고 재개발한다는 전략에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형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공간의 개선만으로 커뮤니티성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시의 낮은 공동체성을 이미 피부로 절감하였으면서도 형식적인 관계 맺기 제안에 ‘아직도 가슴이 뵈다’는 K엄마는 지방 소도시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감정과 태도에 자리잡아 다른 환경인지 성향을 보인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성장환경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이 ‘과보호’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이도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 요즘 엄마들은 너무 보호하려고 하지요. 옛날 시골도 위험한 게 많은 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내버려뒀죠. 내 친구는 애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네가 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 자체가 위험성,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안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모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이가 자아가 생기는 게 싫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그런데 어느 순간, ‘재도 인격체고, 재 생각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런데 내가 그 애를 내 손에 움켜 질러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우연한 기회에 놓게 되었어요...” (K엄마)

이렇듯 10대 중후반까지 농촌, 지방 소도시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공동체 내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비록 위킹맘 생활 등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호적인 태도를 비춘다. 또 아이에 대해서도 양육자의 관할과 보호 하에 두기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주려는 성향이 크다. 이에 전업주부로서 근린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W엄마의 경우, 12명의 면접자 중 두드러지게 자신 스스로와 자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도시 생활만을 경험하였거나 유년시절부터 보행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생활을 경험한 면접자들의 경우, W엄마나 K엄마와 같은 공동체 지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전 너무 엮이는 것도 싫어요.” (B엄마)

“주변 친구가 별로 없어서... 다른 엄마들은 어찌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려서 어디서 자랐는지 묻자) 어려서 시골에서 한 1~2년 살았다고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거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서울 신림동, 그리고 신도시 쪽으로...” (J엄마)

어려서 거의 서울 생활만 경험한 B엄마, J엄마는 근린 주거 공동체에서의 상호 작용 의지가 약하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밖에서 뛰어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그렇지 못한 요즘 아이들의 상황만큼은 안타깝게 여긴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양육자는 어린이들이 독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육자의 보호를 받는 상황을 매우 당연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도시 생활에 더해 유년 시절부터 아파트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다.

“(어린이들을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며 보호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자) 그렇죠, 어린이애들은 집도 못 찾아오고 하니까. (질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에이~ 근데 애기들은 필요하죠, 엄마가... (어렸을 때 어땠나 물으니) 그렇게 잘 기억 안 나는데... 혼자 놀면 집에 찾아올 수 없잖아요, 놀면. (어릴 때 동네 언니 오빠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위 언니가 있어서 함께 다녔지, 그리고 아파트에 살았어요. 부산에 그 때 아파트에 살았어요 (7~8살 때). 애가 왜냐면, 집에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쯤 되려면 6살, 7살 되야 찾아오지 않나, 5살에 찾아오나? (5살도 집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해주자 놀람)” (P엄마)

“(양육자의 어린 시절을 묻자) 다섯 살, 이때 솔직히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엄마가? 네 살, 다섯 살 때는? (어디서 자랐냐 물어보니) 아파트였어요, 이런 아파트. 수원. 네 살, 다섯 살 때는 솔직히 엄마가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밖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제가 6살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네요, 그 전에는 주택. 그런데 네 살, 다섯 살 때는 집 앞에는 나가긴 했는데, 그 근처를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C엄마)

P엄마나 C엄마와 같이 아파트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경우, 양육자들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을 뿐더러, 어린이가 취학 전 독립 보행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렇듯 보행공간이 열악한 아파트 생활이 아이의 독립 보행을 지연시킨 현상은 심지어 조부모 양육자 세대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할머니 양육자는 각각 취

학 전 아동을 주택가와 아파트에서 키웠는데, 70년대에 주택가 골목에서 자식들을 키웠던 Y할머니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밝혔듯, ‘그 때는 아이들이 저절로, 두 세 살 쯤, 걸을 줄만 알면 밖에 나가서 놀았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적 자본의 힘을 꼽았다.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동네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 그냥 다 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주변에 재가 누구 집 애다, 이런 거 다 아니까 거기 갔다가도 오게 되고.” (Y할머니)

그러나 Y할머니와 달리 P할머니는 70년대에도 취학 전 연령의 어린 자녀들을 지금과 같이 쫓아다녔다고 한다. P할머니가 아이를 키운 곳은 우리나라 아파트 초기 모델 중 하나였던 과천의 아파트 단지였던 것이다.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과천 아파트에 살았어. 70년대. 5층짜리 아파트. (언제 애들을 처음 밖에 내보냈나 물으니) 그 때도 지금이랑 같았던 것 같애. 내가 끌고 다녔고, 따라 다녔고. 그리고 애들이 놀이터 가도 같이 가서 앉아 있었고. 그게 연속이 되었어. 애들을 확 못 떼어냈어. (주변의 주택 사는 분들에 대해 물으니) 낱아서 막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 끌고 다니고 따라다니고... 그것이 P에게도 연결이 되는데다가.

... 과천에서 4년 정도 살았나? (과천에서는 아는 사람 있었나 물으니) 전혀 없었지. 이웃도 뭐...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못 사귀어. 지금은 그래도 할머니가 되니까 좀 많이 하지, 딱 살면 나만 알고 아파트만 다니고...” (P할머니)

양육자의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독립보행과 활동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매우 중요하다. 양육에 있어 무엇이 ‘정상’이며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이 현재의 양육

환경에 대해 판단하는 데도 적용되며, 이러한 환경인지가 현재 환경의 문제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경향에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아이들의 독립보행을 방해하는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양육자의 성장 경험과 비교해 제기되며, 이에 양육자들은 독립 보행을 방해하는 환경,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환경의 개선을 통한 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양육자들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1:1 돌봄 노동의 노력을 당연시하고 계속하며, 이 경우 돌봄 노동의 부담은 경감되기 어렵다. 구 단지의 W엄마가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인 다른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그녀와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7세인 W의 양육과 관련해 W엄마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아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 즉 또래집단 형성과 관련한 사항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동생은 자고 있고, W가 밖에 있는데, 밖은 덥다, 햇볕 비치고 힘들다고, 나가있지 말라고 했더니, W가 그러더라구요. ‘엄마, 나는 친구가 아무도 안 나와도, 밖에서 기다리는 게 행복하다’고... 나 미치겠는거야 그 말 듣는데!...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공원)가서 그냥 누구라도 지나다니면 그냥 그거 보는 게 좋다고. 친구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나가라고 했어요...”

“아랫집에 연년생 형제가 있어요, △△. OO는 이제 초등학생이라 안 놀아주고 (웃음)... ‘엄마, 이제 OO 형은 안 놀아줘~’ 하면서.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야, 여기서 사는 게 장난 아니구나, 모든 걸 엄마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W엄마)

W엄마는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그것을 행복으로 아

는 아이의 모습에 ‘미치겠다’고 말한다. 아이에 대한 그러한 감정 이입은 W엄마의 성장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아이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친구를 사귀고 노는 상황을 매우 당연시하고, 아이가 그렇게 크지 못하는 상황에 심적 괴로움을 겪는다. 마음껏 옥외공간을 누벼본 그녀로서는, 만약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란다면 무척 괴로울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자녀의 현재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혼 초에 다섯 명의 아이를 낳고 싶었다던 그녀는 주변 친척과 바쁜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하는 육아에 아들의 ‘놀이 친구 만들기’ 부담까지 더해지자, ‘엄마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줄 몰랐다’며, 아이는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말한다.

“절대 안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요, 안 낳을 거예요. 뭐가 바뀌어도 안 낳을 거예요. (웃음)”(W엄마)

그러나 구 단지의 다른 부모들은 W엄마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굳이 맞서려 하지 않는다. W엄마와 같이 적극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크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제한된 보행 환경에서 양육자의 관리형 돌봄 노동을 받는데 익숙했던 이들은 보행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도 아동의 독립 보행을 허용하기 보다, 1:1 돌봄 노동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서 옥외환경이 양호한 신 단지에 살고 있는 C엄마는 W엄마와 가장 큰 대척점에 있다. C엄마는 신 단지에 살면서도 아이를 1:1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들어올 일이 없으면 굳이 (놀이터에서) 안 들어오죠. 굳이 아이들을 혼자만 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전 아이랑 있는 게 좋아요. 엄마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전까지는, 거꾸로 애들 없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내가 내 자기 계발 할 거 있으면 자기 계발 하고. 애가 오고

나면 아이가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도 동네 친구 엄마들 만나서 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아이가 없는 시간에 수다 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간 분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아이가 없는 시간에는 거꾸로 제 개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고. 아이가 오면 아이 때문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야 하면 만나서 수다를 떨고.”(C엄마)

그녀는 ‘굳이 아이들을 혼자만 뒹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70년대 놀이터 연구에서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감시가 필요 없는 안전한 놀이터’를 원하던 성향(유동주, 1975), 80년대 유럽의 보행자 천국을 부러워하며 ‘유럽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전한 언론<sup>15</sup>의 논조와는 매우 다르다. 1:1로 아이를 관리하는 양육 방법을 매우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내면화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계발’, ‘시간 배분’ 등 전업주부이지만 자신이 하루를 ‘근대적 시간 관리 계획’에 따라 살고 있음을 피력한다. 아동 양육을 주된 업무로 맡은 핵가족 전업주부 이데올로기를 가장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요즘 아이들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종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종류가... 요새 애들 한글 혼자서 되게 잘 읽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애네들은 우리가 다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5세 때 저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혼자 탔어요? 물론 교육이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엄마들은 그 때도 다칠까 봐 안태웠잖아요. 그랬듯이. 5세 때 안 태웠잖아요. 우리 때는 (스케이트) 사이즈도 없었을걸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나 했지. 요즘 애들은 자전거도 되게 빨리(일찍) 타요, 자전거도. 근데 우리 때는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 거지, 옳고 그름은

---

<sup>15</sup> “조경학회, 도시의 인간화 운동 강연 - 유럽도심마다 보행자 성역(聖域)”, 동아일보, 1979.10.18



아닌 것 같아요.”(C엄마)

C엄마는 아동의 독립성도 종류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바깥은 못 나가지만 글도 혼자 빨리 읽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도 혼자 빨리 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아동의 독립성은 모두 양육자의 돌봄 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양육자들의 조기교육열이 작용한 결과이지, ‘걷기’와 스스로 친구 사귀기, 스스로 친구들과 집단 놀이하기 등과 같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해낸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러한 ‘독립적 능력’은 모두 개인적 용도가 강한 성격의 것들이다. ‘보행’을 통한 친구 사귀기, 놀이 등 사회적 독립성 강화 등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무리 안전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자가 근대적 전업주부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1:1 양육노동을 양육자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독립성과 돌봄 노동의 경감은 요원하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현재의 여론, 보행 환경 등의 영향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은 아니며, W엄마와 C엄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들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흔히 ‘개방 시대’라고도 불린 70~8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성장하며 공동체 공간의 붕괴, 보행환경의 악화를 비교적 덜 경험한 W엄마는 현재의 열악한 옥외 환경을 자신의 과거 경험에 준거해 인지하며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자신이 성장한 환경과 같은 것을 다시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아이도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이 키우기 위해, ‘사회 없는 사회’에서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아파트라는 가장 열악한 보행환경, 공동체 환경을 경험한 C엄마는 객관적으로 양호한 옥외 환경에도 아동의 독립성을 키워주기보다 관리형 돌봄 노동에 가장 열심이다. 그녀에게 취학 전 아동의 옥외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양육자의 당연한 임무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신의 어머니도 마치 과천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운 P할머니와 같이, 어린 시절 자신을 그

와 같이 ‘보호’ 하였기에, 그러한 보호의 연속은 보행환경이 개선된 아파트에서도 계속된다.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기준도 W엄마와 다르다. W엄마에게 아이의 독립성이, 아이가 양육자와의 관계를 벗어나 타인과 주체적인 관계를 맺고 독립적으로 사회화 되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C엄마에게 아이의 독립성은 읽기, 개인적 운동 능력 등 양육자의 지원 하에 얻어지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렇듯 양육자들의 경험한 과거의 환경은 우리의 양육 환경과 돌봄 노동 속에 현재 진행 중이다. 현 시대 양육자들의 개인화는 이들이 성장한 환경의 개인화 경향을 반영한다. 현재의 환경에 불만을 갖고 저항하며 스스로 사회적 자본을 참여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과거 커뮤니티 붕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또 다른 사회적 자본 획득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내용에서 기술할 ‘시장적 전략’이다.

## (2) 시장적 전략 : 엄마가 사주는 사회적 자본

### 교육기관의 또 다른 기능 : 사회적 네트워크 창출

교육 기관의 기능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등 교육 기관 역시 중요한 사회화의 대행자이다 (A.Giddens, 94p). 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유아 사교육은 흔히 ‘과열된 교육열’의 한 단면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영아기(만 2세 전) 부모들은 34.6%, 유아기(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들은 77.3%, 아동 전기(초 1~3학년)와 후기(초 4~6학년) 부모들은 98.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자녀 1명에게 최소 1개 ~ 최대 7개까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sup>16</sup>.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도 나오는데, 정부가 EBS 등을 앞세워 대학입시 사교육 시장을 누르자,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부풀어오

---

<sup>16</sup> “영유아 학부모 83%가 사교육 시킨다”, 뉴시스, 2013.11.13

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들의 마케팅으로 부모들이 유아기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명순, 2007; 이정원, 2009에서 재인용), 부모 스스로가 자녀를 가르치며 자녀와 상호작용 기회를 늘리고자 함(이정원 외, 2008; 이정원, 2009에서 재인용), 남들이 다하니까 한다는 불안심리(우남희 외 1992; 이정원, 2009에서 재인용)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이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 ‘사회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 사교육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즉, 흔히 이야기 하듯 ‘교육’의 문제가 아닌 커뮤니티와 환경, 공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자 중 유아 사교육 기관을 활용해보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양육을 고집하는 W엄마조차 ‘문화센터’라고 일컬어지는 유아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였다. 이유는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였다.

“W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후) 6개월때부터 갔어요. 우선, 친구가 없어요, 내 친한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대화를 하려면 뭔가 똑 같은 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애기 엄마들은 개월 수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친구를 사귀려면 거기서부터 출발인 것 같아요. 애의 친구이자 엄마의 친구. 문화센터 시간 끝나고, 만나서 키즈 카페도 가고, 도시락 싸서 서울대공원도 같이 가고, 같이 놀아요, 평일에. 일단 우선, 같은 그...느낌이 있잖아요, 애를 키운다는 거... 같이 위안받고, 같이.. 물론 힘들죠. 그런데 같이 싸돌아 다니면서, 애기 보여준다고. 목적은 애가 첫 번째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런 건 두 번 째.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선 집에서 벗어나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화센터를 다니는 것 같아요.” (W엄마)

---

<sup>17</sup> “[영유아 사교육 광풍] 유명입시업체들도 영유아 시장 넘본다”, 세계일보, 2013.8.6

전술했다시피, ‘도시에서 혼자 고립되어 아이를 키우는 핵가족 주부’는 ‘신화’이다. 오치아이 에미코는 이를 ‘이웃 네트워크’로 설명하였다. 근린 환경이 사회적 상호작용 지원에 부족할 때, 양육자들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공간을 찾아 모인다. 이동성이 강화된 현대에서 이웃의 공간적 경계는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저출산 상황으로 이웃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찾기 힘들 때, 양육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의 공간 반경을 확장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유아 사교육을 성장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S엄마의 사례도 비슷하다. 그녀 역시 아무런 연고가 없는 현재 주거지에서 이웃에조차 아이를 키우는 집이 없자, 자기 자신과 아이의 친구를 찾아 인근 ‘문화센터’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문화 센터 간 이유가?) S의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거기에서 친구 사귀니까, 다른 단지 살아도 되게 자주 만나고... (사귀 엄마들과 어디를 가는지 물으니) 처음에는 뭐 갈 데가 키즈카페나... 날씨에 따라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 제일 잘 가는 데는 OO호수. 거기 옆에 음식점, 카페 ... 거기 정원, 산책로를 너무 잘해놨어요, 토끼도 있고, 물도 쭙쭙쭙...여름에는 중앙공원 자주가고, OO물놀이터. 거기가서 첨병첨병...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런 식으로. 밥 먹으러 갔다가 그런 식으로 어울리는 거야, 그 정도.”(S엄마)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즉 ‘말이 통하는’ 친구를 찾아, 키즈카페, 대공원, 물놀이터 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이들이 유아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놀이 그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놀이 행위 다수에 교육적 성격임을 부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육자들이 모이는 이유가 반드시 조기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적에서건 이들에게는 사회적 네트워크 - 그리고 이는 여러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센터’라 일컫어지는 유아 사교육 기관은 한편으로는 ‘편리한 관계’를 선호하는 현대의 양육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장이기도 하다. S엄마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이사를 결심한 S엄마는 살 집을 알아보면서 다시는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싶지 않은 생각에, ‘아이 키우는 집’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살 집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없는 집을 찾았으니, 주변에 아이 키우는 이웃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혀본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아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줄 상황을 상정하면, 이웃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꺼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층간 소음은 없지만 이웃에 애가 없게 되었네요 라고 문자)... 저는 ‘몇 층 사세요, 몇 살이에요’ 말 걸면, 저는 또 친해지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잠깐잠깐 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던데 같은 동에서? 그리고 친구 있으니까. 따로 만나는 친구 있으니까...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내가 뭐, 우연히 뭐 인연이 돼서 만나면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다가가서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또. 또 내가 집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집에도 없고 하니까 굳이 또 만들어줘야겠다 또 그런 마음은 잘 안들더라구요.” (S 엄마)

통상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나 양육자들은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촉매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W엄마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나 S엄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과거 양육자들이 ‘어머니’를 자신의 가장 큰 정체성으로 생각하며, 이를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관계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였다면, 오늘날의 양육자들은 아이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부모가 되었어도 이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대 도시에서 익명성을 즐기기를 원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워킹맘으로 주거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은 S엄마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 사회에서의 커

뮤니티를 위해 쓸 의지도, 시간도 없는 것이다.

전상인(2009)은 아파트에서 삶에 대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웃관계를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 삶’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S엄마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개폐식 삶’의 전형적 사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위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 아파트라는 공동주거양식의 문제 이상으로, 역시 열악한 보행환경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접촉 부족 등 보행권 문제와 관련해 생각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인근 주거지역을 떠나 별도의 공간에서 관계 맺는 것이 더 편리한 상황인 것이다.

### 구매가 가능한 사회적 자본

또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한층 커지는 취학 전후 아동과 관련해서는 ‘친구 사귀러 학원 간다’는 세간의 말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해야 하는 활동,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집단 놀이 등을 위해 ‘생활체육 교실’, ‘태권도장’ 등 운동 관련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역시 보행환경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W엄마와 같이 굳이 굳이 아이의 사회적 자본을 양육자 스스로 만들어주려 애쓸 필요가 없다.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기관의 공간 속에 밀어 넣음으로써, 아이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아이의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밖에서 노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태권도장을 가고, 1주일에 한 번 미술 하고, 학습지도 하거든요...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은 (유치원비 제외) 한 달에 약 40만원” (H 엄마)

H엄마는 7살 외아들의 사교육비로 월 40만원씩 지출하게 된 이유로 교

육적 목적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형제가 없는 외동 아들의 친구 만들기, 즉 자녀의 사회적 자본 만들기이다.

“작년 초에 (역시 외동아이를 두어서) 친구를 찾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되게 적극적으로, ‘아,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놀아요’ 하면서.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게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딱 보이더라구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엄마들끼리 모이고 해서, 태권도도 해야 한다더라, 뭐도 해야 한다더라 ...(웃음)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많이 (사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H 엄마)

H엄마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엄마도 아닌 친구라는 것을 안다.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도(엄마도) 없는 사람이 되고 (웃음).” (H 엄마)

“조기교육 목적보다도... 블록을 시키든 체육을 하든, 요즘은 태권도에서 진짜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밖에서 하고 놀던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걸 태권도장에서 돈 주고 하는 거야. 나가면 할 수가 없으니. 나가면 애들이 그만큼 모이지가 않으니까. 저도 태권도장을 한 세 군데 돌아서 거길(지금 다니는 곳을) 결정한 거거든요.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그 시간에 다 피구하고, 빨리 달려가 뭐 치고 오고, 이어달리기 하고...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걸, 나가면 동네 애들이랑 못하니까 거기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태권도는 잠깐. 5분이에요, 진짜.” (H 엄마)

H엄마가 전하는 사교육, 특히 각종 ‘체육교실’ 등의 실상은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걸 돈 주고 하는 것’이다. ‘나가면 애들이 그만큼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설교육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인에게도 교

육 기관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밖에 놀 곳이 없어서, 사교육 기관에 친구를 사귀도록 보낸다고 들었다고 물으니) 그런 것도 있어요 (웃음). 태권도장!(웃음) 운동도 옛날에는 나가서 뛰어 놀면 그게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태권도를 가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그래요. (태권도장도 태권도는 5분 정도 밖에 안 한다고 들었다고 물으니) (태권도) 안 해! (웃음) 나머지는 다 레크리에이션이야, 맞아요, 생활체육! 그렇게 변했어요, 진짜, 태권도! 엄마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학년은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체육하고 뛰고... 놀러 가는 거야, 애들하고... 일부러, 진짜 태권도 보냈어요, ‘밖에서 뛰어 놀아’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밖에서 오래 못 노니까, 태권도 가서 뛰다 와라 그리고 태권도를 일부러 보냈어요.” (X엄마)

사람을 끄는 것은 사람이다. 아이들이 없는 곳은 더욱 비게 되고, 아이들은 또래 아동들이 많은 곳을 찾아 간다. 신 단지의 경우 놀이터도 좋고 놀 곳도 많은데 아이들을 굳이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X엄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여럿이 놀 수 있으니까. 만약에 놀이터에 놀아도 한정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거의 한 두 명, 아니면 아예 혼자 놀 때도 있으니까, 태권도 가면 여러 명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줄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도 사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내요...” (X엄마)

신 단지의 놀이터는 과거 혹은 구 단지의 단조로운 놀이터와 달리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여러 시설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한



다. 신 단지에서 아이들의 옥외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관찰되는 것은 역시 구 단지와 비교해서일 뿐인 것이다. X엄마는 신 단지의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항상적으로 집단 놀이를 할 수 있는 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양육자들은 놀이에 필요한 인원을 항상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사교육 기관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H엄마는 외동아들인 H가 태권도장에서 손위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태권도장은 형아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가는 길에 형아들을 만나, 그러면 개네들이 ‘H야, 이리와~’ 하면서 끌어주는 게 있더라구요... 학교 폭력 때문에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형아도 없고, 친형도 없고, 태권도장에서 아는 형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웃음).” (H엄마)

또한 위킹맘들은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에 보내기도 한다. 좁은 집안에서 부대끼기 쉬운 ‘황혼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교육이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킹맘들의 사교육 이용이 전체 아동들의 사교육 이용을 부추긴다고도 이야기된다.

“둘만 낳아도 할머니가 혼자 어떻게 봐요... 우리 엄마, 시어머니도 좀 쉬셔야 하는데,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라 하기 미안하니까 학원 스케줄도 잡게 되고. 그럼 집에 있는 엄마들도 ‘그래? 재 뭐 해? 그럼 애도 뭐 해야지’하면서, 본인은 집에 있지만 자기도 보내게 되고.”(H엄마)

공간의 상업화가 심화된 현재, 어린이들의 사회적 자본은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도 ‘구매’ 되고 있다. 근린주거 내에서 참여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기 꺼리는 양육자들은 이와 같은 사교육 소비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사교육 기관, 실내 놀이 환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자발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리려는 양육자들의 노력은 그에 비례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훌륭한 옥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래집단을 찾아 실내 사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옥외공간 개선의 필요성은 경감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동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극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하 <표 4>에서는 위 3장에서 다룬 돌봄 노동과 돌봄 전략의 내용을 친구 단지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보행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과 돌봄 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환경 및 공간이 돌봄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양육자들의 성장 경험과 그에 따른 커뮤니티성에 대한 인식, 돌봄 태도 등을 통해 환경 인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한 세대라는 긴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 가능한 것이다.

|                  |     | 구 단지  | 신 단지   |
|------------------|-----|---|--|
| 돌<br>봄<br>경<br>험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이상 활동성이 증가하는 어린이의 동적 활동 (자전거 타기 등)에 대해 특히 불안감이 높음</li> </ul> </li> <li>○ 아동을 동반한 옥외 활동시, 스트레스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아동과의 보행에 따른 긴장도 높음</li> <li>- 놀이터 인근의 휴식 시설이 열악하여 아동 보호 및 감시 활동에 부담</li> <li>- 옥외 활동 욕구가 자극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외출 저항감이 높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동적 옥외활동에 대해 안심 및 긍정 평가</li> </ul> </li> <li>○ 아동을 동반한 옥외 활동시 스트레스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인근에 주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휴게시설 설치로 양육자 자신의 휴식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 양호</li> <li>- 외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낮음</li> </ul> </li> </ul> |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독립보행 지연으로 돌봄노동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관리형 돌봄 노동</li> </ul> </li> <li>○ 통행 목적의 공간, 사회적 자본 약화가 원인</li> </ul>  |  |
| 돌<br>봄<br>전<br>략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사회적 자본 만들기'가 돌봄 노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적 전략 : 양육자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관계 강화 등으로 양육자 자신과 자녀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노력</li> </ul> </li> <li>2) 시장적 전략 : 양육자가 사회적 자본을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 놀이시설, 사설 교육기관 등 물리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공간 소비 (아동 놀이의 실내화 동반)</li> </ul> </li> </ul> </li> <li>○ 성장환경 및 경험에 따라 다른 환경 인지 및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행환경 제약 경험이 비교적 적은 농촌, 지방 소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에 대한 신뢰, 커뮤니티 지향성이 높은 편으로 참여적 전략을 통한 사회적 자본 강화 선호</li> <li>- 아동의 독립 보행이 지연되는 현상 우려. 아동의 독립 보행 및 독립적인 사회적 네트워킹 선호</li> </ul> </li> <li>2) 보행환경 제약 경험이 높은 도시, 아파트 등에서 성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에 대한 신뢰, 커뮤니티 지향성이 낮은 편</li> <li>- 특히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아파트에서 성장 ·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 1:1 관리형 돌봄 노동 가치관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독립 보행 지연과 돌봄 노동화 당연한 규범으로 수용</li> </ul> </li> <li>- 아동의 독립성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사회적 관계가 아닌 지식 · 운동 능력 등 '개인적 능력' 위주)</li> </ul> </li> </ul> </li> </ul> |  |

<표 4> 돌봄 경험 및 전략 비교

## 제 4 장.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인구학에서는 후손의 독립성 여부가 출산간격에 영향을 주어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아동의 독립성 여부가 양육자에게는 돌봄 부담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주거양식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행환경과 돌봄 노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은 언제나 진공상태가 아닌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보행환경이 강화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는 구 단지에 비해 많은 어린이들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의 야외 놀이를 길 위에서 즐기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 현대 양육자들의 일차적 우려인 교통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따라 신 단지의 양육자들은 양육 스트레스도 덜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아파트 단지들이 ‘통행’ 목적의 옥외공간을 제공하였던 데 반해, 신 단지의 옥외공간에서는 녹지 등 휴식공간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양육자들의 관리형 돌봄 노동의 스트레스도 경감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보행공간이 강화된 신 단지의 돌봄 노동 행태도 구 단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양육자가 아동의 옥외공간 독립 보행을 과거에 비해 훨씬 늦은 시기 - 취학 전후 - 에 허용하는 것,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여 양육자가 옥외공간에서 아동의 뒤를 쫓는 1:1 관리형 돌봄 노동이 지속되는 현상, 아동의 독립적 활동이 제한되자 양육자가 직접, 혹은 사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아동 대신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주는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현상이 그것이었다.

보행환경이 향상된 신 단지 내에서도 아동의 독립보행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아파트 단지가 ‘섬’ 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단지 내 보행환경은 양호하나 아동의 활동 반경이 단지 내로만 제한되지 않기에 교통사고 걱정이 완전히 덜어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보행환경 개선 없이는 신 단지의 환경적 위험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는 위험은 양극화될 수 있어도 불안은 양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형 돌봄 노동의 또 다른 원인은 아동 대상 범죄의 가능성인데, 이러한 불안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즉 우리 사회 어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전체 사회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주거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도 가장 양호한 주거지역의 중산층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견 모순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 양극화의 해소 없이, 특정 지역의 불안만이 관리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는 오늘날의 양육자들이 환경 인지적 측면에서 관리형 돌봄 노동의 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70~80년대에 흔히 ‘개발시대’라고도 불리는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양육자들 중 성장과정에서 보행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지방 소도시, 농촌 출신자들은 아이들의 독립보행과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 혹은 공동체 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아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또한 돌봄 노동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보행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대도시에서 성장한 양육자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불안도가 높거나 지향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게다가 유년시절에 당시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했다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신 단지에서도 환경의 위험을 매우 높게 인지하고 아동의 독립성에 회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아동의 독립성을 ‘양육자와의 관계를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양육자의 지원 하에 개인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도 발견되었다. 즉 양육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보행 환경과 경험이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의 환경 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의 현재 양육 태도와 돌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다.

정리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린주거환경에서 ‘한국형 게이트드 커

뮤니티'라고도 불리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선된 보행환경은 그 개선 노력에 부합하여 특정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옥외 활동을 허락하고,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도 일부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지녔음이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지 않는 한 아동의 근본적인 독립보행은 요원하며, 이 시대 양육자들의 돌봄 노동 부담도 근본적으로 경감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 시대를 거치며 진행된 우리 사회의 보행환경 악화, 공동체성 파괴가 현재의 환경 인지와 돌봄 노동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지난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며, 이렇게 현재의 저출산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다시 미래의 돌봄 노동과 출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조심스레 짐작할 수 있었다. 공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바, 현재의 공간과 사회의 변화가 미래의 사회와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 연구의 함의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각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만들기’라는, 가족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주로 양육비 등 경제적 요인, 장시간 노동과 핵가족화 등 사회적 요인 등에만 초점을 맞춰오던 기존 연구에 양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추가된 것은 타당하며 반길만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축이나 도시계획, 환경 등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가족·아동·여성 친화적 환경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근린주구에서의 보행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행중 사고율이 OECD 상위권을 지속 유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한

사회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자각과 반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공간 복지에 소홀하며, 모든 재생산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개발 자유주의 전략이 구사되는 상황에서, 근린주거에서의 보행환경이 아동 활동과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50% 이상의 인구가 아파트 단지라는 ‘사유지’를 통해 공간 복지에 대한 욕구를 사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체 사회의 안전 향상 노력 및 국가의 ‘공간복지’ 투자 없이, 사적 차원의 보행환경 노력만으로는 돌봄 노동의 근본적인 경감도 가져올 수 없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삶의 환경 문제에 무심하였던 전 시대에서 성장한 양육자들에게서 개발 자유주의 시대가 만든 개인주의, 관리형 돌봄 노동 규범 등을 발견함으로써 현재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에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수 있음 역시 조심스럽게 확인하였다.

## (2)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는 질적 면접의 대상자가 대졸 중산층 이상 가정의 양육자들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중산층의 상징이기는 하나, 현재 열 명 중 대여섯 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은 이러한 연구의 대상이 보다 넓은 계층의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행환경의 차이에 따른 어린이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었으나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어린이의 환경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과 평가가 중요한 만큼, 이후에는 어린이의 감정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책세상
-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 사회문화연구소
- 국토연구원.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1,2』
- 기든스(A. Giddens). 1989. 『현대 사회학』 . 김미숙 외. 을유문화사
- 라무르(C.Lamoure). 2007. 『건기의 철학』 . 고아침 역. 개마고원
- 리비-바치(M. Livi-Bacci). 1989. 『세계인구의 역사』 . 송병건·허은경 역. 해남
- 몽고메리(C. Montgomery). 2013.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 윤태경 역. 미디어월
- 박인석. 2013.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 현암사
- 버거·루크만(P.L.Berger and T.Luckmann). 1966. 『실재의 사회적 구성』 . 하홍규 역. 문학과 지성사
- 배은경. 2012.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 시간여행
- 벡 게른스하임(E. Beck-Gernsheim). 2006. 『모성애의 발명』 . 이재원 역. 알마
-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 1979. 『인간 발달 생태학』 . 이영 역.



교육과학사

- 쇼트(J. R. Short). 1989. 『인간의 도시』. 백영기 역. 한울
- 에미코, 오치아이(落合恵美子). 2010.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전미경 역.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그린비
- 임금선. 2013. 『보행도시』. 한울
- 임승빈. 2012. 『환경심리와 인간 행태』. 보문당
-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창비
-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 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 정 석. 2013.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효형출판
- 제이콥스(J. Jacobs). 1961.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그린비
- 조복희·도현심·유가효. 1989. 『인간발달』. 교문사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 주거학연구회. 2004. 『안팎에서 본 주거문화』. 교문사
- 줄레조(V. Gelézeau). 2007.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 짐멜(G. Simmel).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 퍼트넘(R.D. Putnam). 2000. 『나홀로 불링』.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 하워드(A. Howard). 1898. 『내일의 전원도시』. 조재성·권원용 역. 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홍두승·이동원. 199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소형아파트 단지 과밀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출판부

Peter D. Norton. 2011. *Fighting Traffic : The Dawn Of The Motor Age In The American City*. Massachusetts : MIT Press

## 논문

강준만. 2009. “마라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걷기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인물과 사상」 135 (2009.7). 54~61

고가영. 2014. “ 한국인의 여가 : 질적, 양적으로 미흡하다” , 「LG Business Insight」 (2014.6.25). 2~14

고은정·이경환·안건혁. 2006.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의 변화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7권 제4호

공선희. 2007. “한국 노인의 돌봄 자원과 돌봄 기대 : 생애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자인. 1997. “인간주의 도시론” . 「공간과 사회」 통권 제 9호. 259~269

김대현. 1999.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병석·박진아. 2013. “단독주택지 담장 허물기 사업 후 물리적 변화요소가 자연적 감시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14권 제3호 (2013년 6월). 119~130

김중훈·양소현·성지현.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

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 권 1 호, 87~102

김태훈. 2013. 『한국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실천적 설계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노서영. 2013. “근린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자살률에 관한 연구 :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신애. 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 권 3호. 135~149

박성신·이원아·김혜란·류전희. 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가로 연구”. 「가족과 문화」 제 21집 1호. 151~174

박소현·최이면·서한림. 2008. “주거지 물리적 보행환경의 특성차이에 관한 연구 : 가회, 성산, 시흥, 상계, 개포, 행당 지역을 사례로 ”. 「대한건축학회지」 제 24 권 제 2 호 (통권 23호). 215~226

박찬화. 2011.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 지원 및 심리적 안정감이 둘째아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 생활과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박형용. 1997. “한국의 근대도시계획 형성”. 「공간과 사회」 통권 제 9호. 74~93

백혜선·박영기. 2002.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생활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식 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 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2호(통권 170호). 87~94

서선혜. 2012. “주거복지에 대한 건축 계획적 특성 분석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주로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2권 제2호 (통권 제58집)

- 서정열. 2013. “ ‘도시걷기’의 인문학적 접근과 도시공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동향과 전망」 통권89호. 259~290
- 서주현·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73집. 101~121
- 서한림·박소현. 2007. “주거지 내 물리적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건축학회논문집」 제 23권 제8호. 191~199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제32권 2호. 59~85
- 신은주. 2009. “아파트 외부공간 특성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 학회 논문집」 19권 2호 (2009.8). 5~16
- 오용준·윤갑식. 20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51 ~ 64
- 오찬욱. 2010. “노인의 아파트 디자인에 대한 거주 후 평가 : 김해시 장유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5호 통권82호(2010.10). 122~129
- 유동주. 1975. “옥외위락공간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재언·진미정. 2012. “도시화 규모에 따른 미취학자녀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0권 6호. 39~51
- 이경환. 2008. “근린환경이 지역 주민의 보행 시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 2012.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위한 아동돌봄 기준선”. 비

- 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2.7). 45~80
- 이영호. 1999. “공동주택 거주자의 옥외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 10권 제 2호 (1999.5). 259~268
- 이준호·박현정. 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 방과후 자기보호(self-care)가 초등학생의 자기학습 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27~59
- 이 호. 1996. “인간주의에 기반한 도시정치”. 「공간과 사회」 통권 제 7호. 59~90
- 이태리. 2012.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어린이 보행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창·조유정·권소영·하미경. 2007. “아파트 단지 외부 커뮤니티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 제23권 제4호(통권 222호)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63~90
- 장석용·정현영·우승석. 2010.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대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선진국 보행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0권 제1D호(2010.1). 17~25
- 정남지. 2013.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전략과 효과”. 「월간 교통」 통권 제 184호(06). 19~26
- 정현목. 2012.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 한국적 수용양상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서울도시연구」 제 13권 제 1호(2012. 3). 37~56

- 정혜영. 2009.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 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82~112
- 조남건. 2014. “힐링을 배려한 건강친화적 교통정책”. 「환경논총」 Vol. 53. 15~24
- 조성희·강혜경. 2001.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 12권 제4호 (2011.11). 19~31
- 최선영·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제 46집 2호(2012. 4)
- 최근희·진수경. 2014. “가족친화적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27집 제 1호 (2014.3). 235~2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 183호
- 홍승애·이재연. 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제32권 2호. 53~70
- Mimi Sheller, John Urry. 2003. “Mobile Transformation of ‘Public’ and ‘Private’ Life”. *Theory, Culture & Society* 2003 20(3). 107 ~ 125

## Abstract

# Child's Walking As Care Work

Hwang, Myeong-Ju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ow fertility rate (LBR) has become the national issue in Korea since a few years ago. It was mainly caused by Korean Developmental Liberalism that has only focu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paid not much attention to the social welfare and reproduction system. It means that the 'spatial welfare' of Korea has been neglect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care work for pre-school children and the pedestrian environment in the Korean apartment complexes which have been the major residential styles of Korean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ince mid-1990's, a few Korean could have experienced the change of pedestrian environment in the residential area. New apartment complexes began to afford residents with almost 100% underground

parking area and the larger green space, resting areas and trails. The walking environment in the residential area has been improved drastically.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parenting stress of fosterers of old and new apartment complexes shows differences by their pedestrian environment.

However, this research results say that children living in the both apartment complexes go out and play without their fosterers at 5~8 years old (average of 7 years old). The causes of the common delay of pre-school children's independent walking are fosterers' worry about car accidents,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low fertility itself. Even the new apartment complex is not 'the island', so it can't be perfectly free from the danger and anxiety of the society that it belongs to.

Nowadays, fosterers are doing 'new care work' of making their children's social networks for themselves. In these works, we can also find the environmental influence of the fosterers' growth process. The ones who have less experienced the demolition of pedestrian environment and community in their growth period favor the strategy for making social capital with taking part in their neighborhoods actively. But the others who have experienced the worse environment favor the strategy of buying social capital from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The interaction of space and human behavior has appeared over generation



Nowadays, the more ecological approaches like ‘Making The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 is emphasized by Korean government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LBR. For this, the weak pedestrian privileges of Korean children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in the residential area. It’s not the issue that can be settled by the effort of private sectors. The government’s attentions and efforts are needed more.